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돌하르방 좌측(2025, 좌혜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돌하르방 우측(2025, 좌혜경)

제주 돌하르방과 석장승(벽수)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좌혜경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	5
1. 용어의 정의와 변천	5
1-1 돌하르방	5
1-2 장생(長生), 장생(長柱), 장승(長承)	7
1-3 석장승(돌장승)	8
1-4 벽수	8
2. 돌하르방과 벽수의 친연성	11
2-1 제작 시기	11
2-2 형상적 측면	18
2-3 기능적 측면	24
III. 신앙과 문화적 배경	34
1. 민간 신앙적 측면	34
1-1 선도적 측면	34
1-2 무속적 측면	37
2. 불교적 측면	40

IV. 벽수의 문화사적 가치	43
1. 조형예술을 넘는 공동체의 생명력	43
2. 신, 사람, 자연과의 공존	44
3. 수용을 통한 창조적 미의식	45
V. 보전방안 및 여건 분석	46
1. 보전에 관한 방안 및 계획	46
2. 법안 및 민속 문화유산 지정	47
2-1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47
2-2 지방 민속문화 유산	50
2-3 국가 민속문화 유산	51
2-4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51
VI. 연구 결과	53
1. 연구 결과	53
2. 연구의 한계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0
부록	64
1. 벽수의 크기	64
2. 육지부 석장승 조사	67

표 차례

〈표 II-1〉 지역에 따른 벽수의 이칭	10
〈표 II-2〉 벽수 제작 시기	17
〈표 II-3〉 벽수의 형상에 따른 분류	23
〈표 II-4〉 벽수의 기능상 분류 및 명문	31
〈표 V-1〉 지방 민속문화유산 지정 목록	50
〈표 V-2〉 국가 민속문화 유산 지정 목록	51
〈표 V-3〉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수	52

그림 차례

[그림 II-1] 제주목관아 소장 돌하르방	5
[그림 II-2] 관덕정 앞 돌하르방(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5
[그림 II-3] 제주성 동문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1930년대, 홍정표)	6
[그림 II-4] 황장생(영암)	8
[그림 II-5] 국장생(영암)	8
[그림 II-6] 상원주장군(부안 서문안)	14
[그림 II-6] 부안 서문안 당산	14
[그림 II-8] 하원당장군(부안 동문안)	15
[그림 II-9] 불회사 주장군	15
[그림 II-10] 불회사 상원당장군	15
[그림 II-11] 운흥사 하원당장군	15
[그림 II-12] 운흥사 상원주장군	15
[그림 II-13] 옹호금사촉귀장군	16
[그림 II-14] 대장군	16
[그림 II-15] 상원주장군	16
[그림 II-16] 통영 문화동 토지 대장군	17
[그림 II-17] 토지대장군 뒷면	17

[그림 II-18] 순창 남계리 벽수	19
[그림 II-19] 대정읍 남문 돌하르방	19
[그림 II-20] 곡성군 가곡면 할아버지	20
[그림 II-21] 곡성군 가곡면 할머니 미륵계열의 수인	20
[그림 II-22] 주천면 호기리 벽수	21
[그림 II-23] 할아버지 당산	21
[그림 II-24] 영암군 쌍계사지 주장군	22
[그림 II-25] 영암군 쌍계사지 당장군	22
[그림 II-26] 남원 운봉면 권포리 동방축귀대장군	23
[그림 II-27] 남원 운봉면 권포리 서방축귀대장군	23
[그림 II-28] 돌문화공원 돌하르방	26
[그림 II-29] 삼성혈 건시문 앞 돌하르방	26
[그림 II-30] 제주대 박물관 앞	26
[그림 II-31] 여수 연등동 남정중	27
[그림 II-32] 여수 연등동 화정녀	27
[그림 II-33] 상주 남장사 벽수 하원당장군	28
[그림 II-34] 관룡사 입구 벽수	29
[그림 II-35] 우호대장군	29
[그림 II-36] 좌호대장군	29
[그림 II-37] 방어대장군	30
[그림 II-38] 남원 서천리 당산	30
[그림 II-39] 진서대장군	30
[그림 II-40] 유곡리 마을 벽수(우측)	31
[그림 II-41] 유곡리 마을 벽수(좌측)	31
[그림 III-1] 부안 월천리 왕검, 환웅 벽수	34
[그림 III-2] 보호동맥	35
[그림 III-3] 와주성선	35
[그림 III-4] 대정현성 서문 돌하르방	36
[그림 III-5] 대정현성 남문 돌하르방	36
[그림 III-6] 대정현성 동문 돌하르방	36
[그림 III-7] 동자복(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36

[그림 Ⅲ-8] 서자복(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36
[그림 Ⅲ-9]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벽수	39
[그림 Ⅲ-10]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제당	39
[그림 Ⅲ-11]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제당과 여벽수	39
[그림 Ⅲ-12]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제당과 남벽수	40
[그림 Ⅲ-13] 전남 무안군 법천사 벽수(우)	41
[그림 Ⅲ-14] 전남 무안군 법천사 벽수(좌)	41
[그림 Ⅲ-15] 경북 의성 대곡사 입구 벽수(우)	42
[그림 Ⅲ-16] 경북 의성 대곡사 입구 벽수(좌)	42
[그림 Ⅳ-1] 성읍 돌하르방(홍정표)	44
[그림 Ⅳ-2] 성읍 남문 돌하르방(홍정표)	44
[그림 Ⅳ-3] 권포리 방사탑과 벽수	45
[그림 Ⅳ-4] 권포리 벽수	45

1. 서론

■ 연구의 목적

- 육지부 벅수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제주 돌하르방과 친연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으로 그 위상을 밝히고자 함.
- ‘석장승’이라고도 하는 벅수는 돌이라는 영구성을 띤 재료 활용으로 긴 세월 민중들과 동고동락해 오면서 기층민들에게 숭앙을 받았고, 선·무·불 등의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속문화를 꽃피웠음.
- 남아있는 다양한 유산을 정리하여 제주의 돌하르방과 육지부 석장승의 바람직한 보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관광용 혹은 관람용으로, 다양한 돌하르방이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목적과 기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새로운 돌문화가 형성하게 되는 현실에, 제주의 돌문화를 대표하는 돌하르방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육지부 현지 조사를 통해 벅수의 조성 시기, 형태적 특성, 벅수의 기능을 분석하고, 돌하르방과 비교 분석으로 한국의 벅수와 위상을 밝히고자 함.
- 돌하르방과 육지부 벅수는 기층민들에게 숭앙을 받고, 민속신앙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고대 민간신앙인 법수(法首)의 영향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온 문화사적인 가치를 찾음.
- 신라 이후 선도수행과 악을 퇴치하는 전통에 의해 조성된 법수가 민간 신앙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육지부 벅수 문화를 정리하고, 제주 돌하르방의 위상도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육지부 조사 대상 및 연구 자료는 김두하(金斗河)저, 『벅수와 장승』¹⁾을 참고하고, 국가 민속문화유산과 시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장승²⁾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분석함.
- 미술사의 시각에서 보면 ‘생명(生命)의 힘과 파격(破格)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³⁾ 벅수 중에서도 제주도 민속유산으로 지정된 제47기 돌하르방을 중심으로 논지를 풀어갈 것임.
- 석장승에 대한 취재기사 및 구술 조사로 엮어진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한 박물관 조사 보고서⁴⁾ 그리고 관련 사진집이나 연구서도 참고함.

- 2024년 12월부터 제주도 돌하르방을 조사하고, 2025년 1월부터 육지부의 한국 벅수를 조사함.
- 필자의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비롯한 육지부 석장승은 총 58곳, 147기에 이름.
- 현재 용어는 제주는 ‘돌하르방’을 사용하고 육지부인 경우 ‘돌장승’, ‘석장승’을 사용하고 있으나, ‘벅수’ 문화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II. 돌하르방과 육지부 벅수

1. 용어의 정의와 변천

1-1 돌하르방

- 돌하르방 명칭은 웅중석(翁仲石), 우석목(偶石木) 우성목(偶成木), 무성목(武成木), 무석목(武石木), 벅수머리로 조사됨.
 - 성읍 지역에서는 ‘벅수머리’라는 용어로 불렸다는 점으로 보아, 지역민들이 육지부 벅수의 기능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됨.
 -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성문벅수, 마을벅수에 속하며, 제주읍의 동·서·남문, 정의현성 동·서·남문, 대정현성 동·서·남문에 세워져 수문장(守門將)이면서 성안에 들어오는 외적이나 잡귀를 막고, 성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守護神)의 기능이 우세함.
-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조선시대 창궐했던 천연두, 역질, 역병, ‘염병(染病)’이라고 하는 두창(痘瘡)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인 역신(疫神), 두신(痘神), 별신(別神), 손님, 마마, 역귀(疫鬼)를 물리치는 것이었음.
 - 곧 성문 지킴이인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도 설치 목적은 역신퇴치와 같은 지역민을 지키는 수호신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육지부 성문벅수와 거의 같은 기능을 했음.
- 역사 속 기사와 웅중석(翁仲石)은 제주읍성에 세워진 돌하르방에 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년)에는 목사 김몽규(金夢燾)가 성문 밖에 웅중석을 세웠다.(甲戌 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燾設翁仲石於城門外)라고 함.⁵⁾
 -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954년)에는 웅중석(翁仲石)에

대해 「제주읍성(濟州邑城)의 동문(東門)·서문(西門)·남문(南門) 등의 3개 문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영조 30년(1754년)에 목사 김몽규(金夢堧) 창건」⁶⁾이라고 기록됨.

1-2 벽수

- 영·호남 지역민은 석장승을 대부분 ‘벽수’라고 칭하는데, 그 기원을 법수(法守, 法首)가 벽수로 음운이 변천되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벽수는 지역에 따라 법슈, 벽시, 벽슈, 법시라고도 불림.
 - 그 기능은 액막이, 부락평안, 부락수호, 잡귀무사, 해운무사, 풍어 등을 담당함.
 - 부락 수호신인 선인(仙人) ‘벽수’가 보호해주는 마을이나 영역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안도감이 질병, 재해, 외적 침략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무나 돌로 조각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상(像)을 세우고 신력(神力)이 나타나도록 재물을 바치고 제를 행하면서 이에 의지함.
- 곧 벽수는 지역민들의 기원을 듣고 감화시켜주는 민간신앙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병마나 자연재해, 역신으로부터의 수호하는 수호신 기능과, 성문 수호의 수문장, 산천이나 마을의 강한 지세를 누르고 약하면 보충해주는 비보(裨補) 기능이 있고, 또 사찰 입구에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호법신(護法神)의 기능을 지님.⁷⁾
 - 민속학적 학문 용어로는 민간의 기원이나 기능, 의례적 측면에서 장승이란 용어보다는 벽수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표2-1〉 지역에 따른 벽수의 이칭⁸⁾

지역	명칭
전북, 경남	장승, 장성, 벽수, 벽시, 법수, 법시 당산, 할아버지, 할매
충남	장승, 신장, 수살막이, 수살목
경기도	장신(將神)
평안, 함경도	당승, 돌미륵
제주도	돌하르방, 무석목, 우석목, 웅중석

2. 육지부 벽수와(의) 천연성

2-1 제작 시기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에 대한 제작 시기를 영조 30년(1754년)으로 설립 연원을 제시하고 있음.

- 대정성이나 정의성에 세워진 돌하르방과 제작이 별개로 진행되었을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나, 시기상으로 육지부의 영호남 지역 벽수의 제작이 17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 돌하르방 제작 역시 육지부 벽수 제작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 육지부의 벽수 제작 유행 시기인 18세기 중반 김몽규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임.

- 돌하르방의 제작 목적은 성문 수호신의 역할과 함께, 당시의 상황인 여역(癘疫) 창궐(猖獗)을 막기 위해, 신라의 처용설화에 나타나는 민간신앙인 역신(疫神)이 처용랑의 화상이 있는 데는 피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벽수 혹은 돌하르방 등 석상을 수호신으로 삼아 제작해서 질병을 막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 했음.

- 숙종과 영조 대의 제주사회에는 천연두인 역병 여역(癘疫)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제주에서도 동일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제주 관련 역병 기사

- 1) 숙종 40년(1714년)⁹⁾ :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장계하기를, “본도(本道)에 여역(癘疫)이 크게 번져 5천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 첩의 약으로는 모두 구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의사(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물(藥物)을 더 보내어 주라고 하였다.(乙酉/濟州牧使狀陳本島癘疫大熾, 死亡五千餘名。以數百貼之藥, 勢難盡救, 上命醫司, 加送相當藥物)
- 2) 숙종 40년(1714년)¹⁰⁾ : 역질(疫疾)이 크게 유행하여 1천여 명이 죽었다.(乙丑/濟州大疫, 死亡千餘人)
- 3) 영조 26년(1750년)¹¹⁾ : 이 해에 천연두인 여역(癘疫)으로 사망한 자는, 경기가 3천 3백 82명, 관동이 5백 72명, 호서가 6천 2백 66명, 호남이 1만 6천 7백 52명, 영남이 1만 7백 39명, 해서가 1만 1천 3백 71명, 관서가 1천 8백 53명, 북관이 1만 2천 1백 41명, 강도가 2천 3백 91명, 송경이 1천 5백 20명, 제주가 8백 82명이었음.

- 육지부에서도 속종과 영조 대를 거치면서 두창 질병과 염병이 만연하면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 마을, 당산이나 절에 장군형 벽수의 설립이 유행처럼 이루어짐.
- 육지부 벽수의 제작 시기가 알려진 것으로 그 시기가 가장 이른 기사로는 전북 부안 읍성 동문 안 벽수로서 그 제작 시기는 현종 12년(1671년)으로 되어 있고, 부안읍성의 서문 안 당산의 벽수는 숙종 15년(1689년)에 제작됨.
 - 부안읍성을 지키던 '성문벽수'의 기능으로는 수문장으로 수호신적 기능과 더불어 성문 안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함에 있음.
 - 부안읍성 동·서문 당산에는 한 쌍의 장군, 곧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 있고, 특히 동문의 하원당장군은 제주읍성의 돌하르방 얼굴 이미지와도 매우 유사함.
- 이 시기 절 입구에 세워진 호법을 위한 사찰벽수의 사례로는 나주 불화사, 나주 운흥사, 남원 실상사, 영암 쌍계사지, 함양 영은사지, 창령 관룡사 석장승을 들 수 있음.
 - 나주 운흥사 입구의 벽수에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하원당장군의 뒷면에 "숙종 45년 강희 58년(1719년)에 화주승 변학과 신도들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기록됨.
 - 나주 불화사 입구에도 남상 벽수인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과 여상 벽수인 주장군(周將軍)이 유명한데, 그 조각 수법이나 형태 면에서 운흥사(雲興寺) 벽수와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됨.
- 남원 실상사에는 불가(佛家)의 해탈(解脫)을 상징하는 해탈교를 건너기 전에 '옹호금사축귀장군(擁護禁邪逐鬼將軍)' 1기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바로 '대장군(大將軍)'과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이 수염을 날리면서 마주 보고 양편에서 있음.

〈표 2-2〉 벽수 제작 시기

소재지	명칭	명기 기록	조성 시기
부안군 부안읍 동·서문안 당산	석장승	崇禎後四十四年辛亥年(동문) 숙종 15년 1689년 2월 화주는 □□선대부인(□□善大夫人) 김진창□□□(金辰昌□□□)대원신장세순(大院臣 張世洵)(서문)	1671(현종12년) 1689(숙종15년)

소재지	명칭	명기 기록	조성 시기
나주 운흥사, 불회사	석장승	‘化主僧卞學康熙五十八年二月日木行別座金老□伊(화주승변학강희58년2월일목행별좌김노□이)’	1719(숙종45년)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	석장승	雍正三年乙卯立冬(대장군) 辛亥年五月(상원주장군)	1725(영조원년), 1731(영조7년)
무안군 성남리 무안읍성	석장승	향약계첩(鄉約契帖)에의거	1741(영조17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읍성 돌하르방	『탐라기년(耽羅紀年)』甲戌三十年 淸乾隆十九年牧使金夢燧設翁仲石於城門外	1754(영조30년)
함양군 영은사지	석장승	乾隆三十年乙酉年二月	1765(영조41년)
창녕군 관룡사	석장승	당간지주 乾隆三十八年癸巳十月 日木廳成造	1773(영조49년)
여주시 연등동	석장승	戊申四月二十八日午時立	1788(정조12년)
상주시 남장사	석장승	壬辰九月立	1832(순조32년)
통영시 문화동	벽수	光武十年丙午八月日同樂洞	1906 (대한제국 10년)

〈표 2-2〉의 제작 시기를 보면 대부분 숙종과 영조 대에 벽수 제작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시기는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로, 설립 목적은 사기(邪氣)와 악귀퇴치 등과 같은 벽수 고유의 본래 기능을 활용해서 염병(染病)을 퇴치하고자 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 설립 시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부안이나 무안읍성, 제주읍성의 성문벽수는 성문 지킴이의 역할 만의 목적이 아닌 악귀를 물리쳐서 질병을 퇴치하는 역신(疫神) 추출이 주된 목적임.

2-2 형상적 측면

- 돌하르방이나 벽수의 외모 형상은 역할과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 벽수 형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게 인면형(人面型), 귀면형(鬼面型), 미륵형(彌勒型)으로 구분됨.
- 인면형은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한 것이며, 귀면(鬼面)형은 사악한 질병인 여역(癘疫)이나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불교의 사천왕상 혹은 무속의 방상씨, 혹은 처용

탈처럼 험악한 안면을 지녔고, 그리고 미륵형은 미륵불처럼 이마에는 백호가 있고 손 처리인 수인(手印)이 있는 것이 특징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형상적 측면에서 인면형에 속하면서도, 무사(武士)인 장군 형상을 지님.

- 육지부 귀면형 벽수는 거의 손이 없고 특히 얼굴 모습을 강조하는 데, 혀라든가, 수염,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사악한 괴질이나 역병을 가져오는 잡귀신에 대한 처량 무기임에 비해 한편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벅거지형 모자, 큰 눈방울, 주먹코, 뭉툭한 볼, 얼굴 형상 등 거의 인면형이지만, 위 아래로 누른 손이 있어 이 손으로 잡귀들을 누를 수 있는 압권의 형상임.

■ 한편 대정성, 정의성의 돌하르방은 인면형이면서도 육지의 마을 미륵 벽수와 닮아있고, 제주읍성 돌하르방과는 형상면에서 확연히 구분됨.

- 이는 제주 각 현 성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나, 역사 문화적인 배경 등의 차이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재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육지부 벽수와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기능적 측면은 같으나,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중국의 장군인 ‘완옹중(阮翁仲)’의 모습을 본떠서 웅중석으로, 전북 남원시 운봉면 서천리의 ‘진서대장군’, 실상사의 ‘옹호금사축귀장군’ 등과 비교하면 장군의 명문도 없고, 외모에 나타나는 귀면(鬼面)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음.

■ 육지부의 마을벽수나 성문벽수는 인면형이면서 미륵형인 경우가 많은데, 돌하르방은 형상적인 면에서도 이들과 많이 닮아있음.

- 육지부의 벽수의 형상은 제주읍성의 돌하르방 제작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됨.
- 정의성이나 대정성에 세워진 각 12기씩의 돌하르방도 벽수의 기능과 마을수호신으로서 육지부 마을벽수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 곧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성문벽수’와 같은 기능을 했으며, 성문수호와 역병이나 재앙을 물리쳐서 성문 안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마을벽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함.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명문은 없지만, 진나라의 장군인 ‘완옹중’을 끌어와 육지부 벽수의 명문인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나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진서대

장군(鎭西大將軍)’처럼, 중국 장군의 권능과 평가와 명성을 끌어와 이용하고자 했던 의식이 잘 드러남.

-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형태나 외형과 닮아있는 성문, 마을벽수로는 전북 부안읍 동중리의 상원주장군,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 전북 남원 운봉의 서천리, 권포리 벽수, 북천리 벽수,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할아버지 당산(벽수) 등을 들 수 있음.

〈표 2-3〉 벽수 형상에 따른 분류

형상	인면형	귀면형	미륵형	인면형과 미륵형
	제주읍성돌하르방	영암군 금정면 쌍계사지 벽수	순창 남계리· 순화리 벽수	대정현·정의현 돌하르방
	운봉면 권포리 벽수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 벽수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벽수	무안군 법천사 벽수
	운봉면 서천리 벽수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	장흥 관산읍 방촌리벽수(여상)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벽수
	부안동·서문안 벽수	전남 곡성군 울천리 벽수	음성군 원남면마송리 벽수	경남 창령 관룡사 벽수
	불회사 벽수	충무시 문화동 벽수(토지대장군)	유성구 화암동 벽수	장흥 관산읍 방촌리 벽수
	운흥사 벽수	장흥 관산읍 방촌리 벽수 (진서대장군)	서산군해미읍성 벽수	
	무안읍성 벽수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벽수		
	남원 인월면 의지리 마을 벽수	경북 상주시 남장사 벽수		
	대전시 읍내동 뒷골 벽수	경북 의성군 대곡사 벽수		
	부안백산면 죽림리공작리 벽수	대전시 동구 비룡동 줄골 벽수(천하대장군)		
	대전시 법동 벽수	함양 영은사지 벽수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벽수(할아버지)	통영시 문화동 벽수		
	무안군 총지사지 벽수	여주시 연등동 벽수		

형상	인면형	귀면형	미륵형	인면형과 미륵형
	여수시 동산동 벽수			
	여수시 봉산동 벽수			
	여수시 시전동(선소마을) 벽수			
	여수시 굴강 벽수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통영시 삼덕리 원항마을			
	통영시 명정동 논개고개			
	광주 서원문 밖 벽수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내벽수 (기삽석대응)			

- 형상 면에서 제주읍성이나 두 현 성의 돌하르방이 모두 손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데 반해서, 육지부 벽수는 손이 생략된 것들이 대부분 임.

- 손이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는 손에 방망이를 든 것처럼 보이며¹²⁾, 이는 악을 물리치는 용기가 손에 집중적으로 표현됨.
- 순창군 남계리, 충신리 벽수는 두 손이 모아져 있는 모습으로 남상과 여상의 구분이 어려운데 대정현이나 정의현의 돌하르방과 유사한 미륵형임.

2-3 기능적 측면

- 김영돈은 옹중석(翁仲石)인 돌하르방을 동문·서문·남문 세 곳에 8기씩 24기를 성문 앞에 세워 읍성을 수호하고 있다고 정리함.

- 그 기능은 성문(城門)이나 주민 수호(守護)하는 기능, 방액(防厄)과 방두신(防痘神) 역할 등 주술 종교적 기능, 성문 위치 표지 및 진입 금지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함.

- 돌하르방의 명칭을 장군의 명칭을 붙인 ‘옹중석’이라고 한 점에서는 육지부 장군형 벽수들의 기능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성문 수호인 수문장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이나 지역민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잡귀를 물리치거나 천연두(痘神)를 물리치는 제액(除厄) 소멸의 기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성문 수호와 진입 금지, 잡귀나 질병의 침입을 막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마을 수호 기능을 지닌 마을벽수, 성문벽수의 기능과 상통함.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육지부 지역의 마을벽수와 성문벽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임.

〈표 2-4〉 벽수의 기능상 분류 및 명문

마을벽수(읍락비보, 마을수호, 왜적퇴치)	사찰벽수(비보, 사찰수호, 영역경계)	성문벽수(수문장, 수호신, 왜적퇴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벽수 (남상, 여상)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영은사지 벽수 (우호대장군, 좌호대장군)	-부안읍성 동종리 동문안 벽수(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부안읍성 서문안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대정현성 돌하르방	경남 창녕군 관룡사 벽수(남장군, 여장군)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 돌하르방(웅중석)
순창군 남계리, 총신리, 용산리 신기마을 벽수	영암군 금정군 쌍계사지벽수(주장군, 당장군)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벽수 (진서대장군, 외1)
전북 주천면 호기리 벽수	나주 다도면 불회사 벽수 (하원당장군, 주장군)	여수 연등동 좌수영성 벽수 (남정중, 화정녀)
전남 곡성군 율천리 벽수	나주 다도면 운흥사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강진군 병영면 하고리 흥교 벽수
남원 운봉면 서천리 벽수 (방어대장군, 진서대장군)	남원 산내면 실상사 벽수 (옹호금사촉귀장군, 대장군, 상원주장군)	서산군 해미면 해미읍성 벽수
남원 인월면 유곡리 (천하대장군), 의지리 벽수	경북 상주시 남장사 벽수 1기(하원당장군)	무안군 무안읍성 벽수 (동방대장군, 서방대장군)
남원 운봉읍 북천리 벽수 (동방촉귀장군, 서방촉귀장군)	경북 의성군 대곡사 석장승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벽수(기갑석대용)
남원 운봉읍 권포리 벽수	무안군 동탄면 법천사 석장승	광주 서원문 밖 석장승 (보호동맥, 외주성선)
충무시 문화동 벽수 (토지대장군)	무안군 동탄면 총지사지 석장승	여수시 연등동 벽수 (남정중, 화정녀)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남원 만복사지 석장승	여수시봉산동(벽수굴) 돌벽수(남정중, 화정녀)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벽수 3기(정계대장군)		

마을벽수(읍락비보, 마을수호, 왜적퇴치)	사찰벽수(비보, 사찰수호, 영역경계)	성문벽수(수문장, 수호신, 왜적퇴치)
부안 죽림리 공작마을 벽수 (상원금귀주장군, 하원금귀 당장군)		
부안 월천리 환웅, 단군 벽수		
무안 해제면 광산리 발산마을 미륵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벽수 (할머니, 할아버지)		
대전시 동구 비룡동 줄곧벽 수(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대전시 동구 용운동 장신 벽수		
대전시 법동 벽수		
대전시 읍내동 뒷골 벽수		
대전시 읍내동 벽수		
유성구 화암동 벽수		
대전시 동구 신상동 오리골 벽수		
통영시 문화동 벽수 기 (토지대장군)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 마을 벽수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원항 마을 벽수		
통영시 명정동 논개고개		
여주시 동산동 벽수 (남정중, 화정녀)		
여수 시전동(선소마을) 벽수 (남정중, 화정녀)		
여주시 굴강 벽수		
사천면 가산리 벽수		

Ⅲ. 민간신앙과 문화적 배경

1. 민간 신앙적 측면

1-1 선도적 측면

- 한국 고대 전통의 고유 사상인 선도(仙道)의 법수(法首)는 벽수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후대 불교와 무속에 습합되어 변용되고 있음.
 - 한국선도에서의 선인(仙人)은 환인, 환웅, 단군으로, 홍익인간과 이화(理化)세계를 표상한다고 함.
 - 신라 이후 불교 전래에 따라 선도수행의 전통은 미륵신앙과 습합 후, 선도계 미륵신앙이 민간 신앙화되고, 마을 수호 신장이 당산의 신체로 변화해서 무속화 되기도 함.
 - 전북 부안 월천리 환웅과 왕검 곶 단군 벽수는 한국 선도의 잔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됨.
 - 이는 원래 한국 선도가 지니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理化)세계의 선도수행 문화의 원형적 모습이라고 주장함.
- 대정성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마을 미륵벽수와 많이 닮아있는데, 선도계 미륵신앙의 민간신앙화로 추정하고 있음.
 - 벽수와 습합된 마을미륵 형상으로 마을 수호와 부락민 수호 그리고 비보 기능을 담당함.
 - 대정현성 인근 변의 수행처에서 신체 또는 수행의 전법으로 존재하는 벽수를 옮겨와, 현성이 축조될 당시인 태종16년(1416년) 마을 수행처의 석상을 옮겨와서 성문벽수로 삼았다는 설도 있음.¹³⁾
- 특히 마을벽수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손 모양인 수인이 남겨진 미륵 형태의 벽수들은 선도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봄.
 - 이들은 마을 땅을 비보(裨補)하고, 지역민 수호적인 직능과 선도 수행자로서, 원래 법수가 지닌 고유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남 곡성군 오산면 벽수(남상, 여상), 순창군 남계리, 충신리 벽수, 제주도의 대정현성 돌하르방 등에서 그 예를 들 수 있음.

- 돌하르방에는 선도적인 요소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행자로서의 수인(手印)의 역할과 함께, 육지부 마을의 선도계 미륵석상이 지닌 수인과도 거의 같음.

1-2 무속적 측면

- 석장승의 무속적인 면은 당산에 있는 석장승이 ‘신’으로서 인정받고, 신앙물에 대한 의례를 통해서 무속적인 사고가 반영됨을 알 수 있음.
 - 돌하르방은 육지부 성문벽수나 마을벽수처럼, 민간신앙적이거나 무속적 관념은 거의 남아있지 않음.
- 돌하르방은 성을 지키는 수문장, 방액(防厄)과 방두신(防痘神) 역할의 수호신 기능, 자식을 기원하고 아들을 바라는 주술적인 요소가 담김.
 - 이처럼 제주도 돌하르방이 당에 속하거나 무속의 영향을 덜 받아 당제를 지내거나 당에 모시지 않는 것은, 기존 남성 중심의 포제(酬祭)나 여성 중심의 무속 의례인 ‘마누라배송’과 같은 의식으로 해결해서 민간신앙 요소는 제한되었던 영향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2. 불교적 측면

- 사찰벽수는 불법과 사찰을 수호하며, 풍수지리적인 면과 함께 국가의 번영과 임금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기능과 더불어 민간신앙의 기원 대상으로 복합 기원의 대상물이었음.
- 불교와 전통신앙의 융합양상을 전하는 사찰벽수는 사찰의 경계표(境界標)·금표(禁標)·불법(佛法)의 수호신장, 국가와 사찰의 보허진압(補虛鎮壓), 잡귀·잡신의 출입을 막는 수문신, 부녀자들의 기자신(祈子神)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전승물임.
 - 육지부 석장승과 달리 제주돌하르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수인은, 제주 동쪽 만수사와 서쪽 해륜사의 복신미륵의 형상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음도 추정할 수 있음.¹⁴⁾

- 경북 상주시 ‘남장사’나 경북 의성 ‘대곡사’의 벽수는 절 입구에 사천왕상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사찰 외곽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절에 들어오는 이들의 제액과 잡귀 잡신을 물리치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과 절의 경계를 표시함.

- 사찰벽수는 사찰의 경계, 사찰 경내 살생인 사냥과 어로의 금지, 호법(護法)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움.
- 남원 ‘실상사’의 벽수는 신성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해탈교를 중심으로 건너기 전에 ‘옹호금사축귀장군’을 입구에 세우고 해탈교를 건넌 후 ‘대장군’과 ‘상원주장군’을 세워서 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방액(防厄)을 하도록 함.
- 무안 ‘법천사’ 벽수는 밑에 돌맹이를 쌓아 올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부인의 배를 벽수의 배에다 맞추어서 튼튼한 아들 낳기를 빌었다는 무속과 불교가 어우러진 무불습합(巫佛習合)의 신앙 석상임.

- 절터 사지(舍止)인 영암 쌍계사지, 함양 영은사지, 무안 총지사지, 남원 만복사지 등의 벽수들은 묵묵히 과거 불사(佛寺)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

- 남원 인월면 유곡리 벽수는 원래 존재하던 절이 폐사되면서, 절 벽수들을 마을로 이동해 세움으로써 마을의 수호신앙으로 자리매김.
-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벽수는 원래 ‘개흥사’ 사찰 입구에 세워졌던 것을 당산에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있음.

IV. 벽수의 문화사적 가치

1. 조형예술을 넘는 공동체의 생명력

- 이종철은『장승』¹⁵⁾이라는 책자에서 1988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석장승은 79개소, 목장승은 90개소, 석장승은 전라남북도, 경남, 충남에 주로 분포되고 있다고 함.

- 최근 간행된 김동관의『장승탐구』¹⁶⁾에서는 육지부의 석장승의 수가 220기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필자의 이번 조사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육지부 58곳, 석장승 147기가 그 대상임.

- 유홍준¹⁷⁾은 제주도 돌하르방은 간결한 형태 요약을 통한 단순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 특유의 무덤가 석인상과 공동체적 이미지로 전환해서 전형적인 수호신상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함.
 - 제주도 돌하르방은 태권도형의 손과 배불뚝이 몸체, 왕방울 눈이 특징.
 - 대정 돌하르방은 해학적이면서 맑은 인상을 줌
- 이종철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의 토속미,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 생명력을 지님.
 - 자연주의적 감성, 양식화의 거부, 과감한 생략, 추상적인 신비스런 표현.
 - 순박한 토속미, 마음을 비운 제작 태도, 멋 부리지 않는 단순성, 사상과 상징의 은근한 반영.
 - 제주 돌하르방은 강직, 온유, 덕성, 허탈, 불굴의 기상, 장수(將帥), 무사(武士) 신상(神像)의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음.
- 이우재는 세련미 부족으로 오는 돌장승의 표정이 친근하고 우습고, 미완의 모습으로 정직성을 가져온다고 봄.
 - 세련미 부족과 파격에서 오는 정신적 울림, 미적 감동을 받는 것은 의외, 미완으로 보이고 엉성한 데서, 현대인이 목말라하는 정직성이 있음.
 - 정직성은 자연과 함께 충분한 교분이 있었음.
 - 석장승의 미는 근사함, 세련미가 아닌, 이를 깨뜨리는 ‘파격미’에 있다고 봄.

2. 신, 사람, 자연과의 공존

- 사람들과의 공존으로, 소망하는 바 기원을 들어주고, 주로 농업의 풍년, 어업의 풍어를 가져다주며, 특히 염병을 가져오는 악귀퇴치의 신통력을 지닌 자연 속에서 신성성이 되살아난 돌문화.
 -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신의 형상으로 태어나, 민신(民神)의 표상임.
 - 자연,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민중 집단의 한과 고뇌, 성원이 담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인(仙人)인 법수(法首), 구도자(求道者), 봉사자의 이미지.
 - 조상의 유산이면서 인류의 유물과도 같음.

3. 수용을 통한 창조적 미의식

- 돌하르방의 눈, 주먹코, 병거지, 수인(손)이 특징으로, 무안 발산리 해제면 미륵처럼 마을벽수의 수호신(守護神) 기능을 수용하고,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守門將)들인 부안, 무안, 장흥, 해미, 병영성의 성문벽수와 같은 기능으로 창조.
 - 절에 세워져 불사를 수호하고 해탈 영역을 표시하며 불법을 수호하던 권위적인 호법 장승의 기능이나 이미지와도 유사한 편으로 남원 실상사 벽수(옹호금사축귀장군, 대장군, 하원당장군)와, 불회사 벽수(상원주장군, 당장군), 운흥사 벽수(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의 이미지와도 상통함.
 - 대정현 돌하르방은 벽수의 원모습인 선인으로서, 마을민을 수호하고 안녕을 가져오는 육지부 마을벽수의 이미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

V. 보전 방안 및 여건 분석

1. 보전에 관한 방안 및 계획

-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지속 보전을 위한 공동 방안 모색
 -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로 신의 형상을 제작하고 공경해 온 원시신앙으로서 벽수 신앙과 관련된 유산의 지속 보전.
 -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벽수’에 대한 체계적인 현실태 조사.
 - 제작자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지방 혹은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벽수의 유산적 가치 발굴.
- 돌하르방과 벽수의 문화 공동체 복원과 관리체계 마련
 - 벽수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과 전통신앙 의례의 지속 보전.
 - 평화와 안녕의 상징인 ‘백아강 법수교를 오고 가던 법수신선’에 대한 벽수 축제 마련.
- 현존하는 벽수 중 유산적 가치가 높고, 지속 보전이 가능한 지역별 자료 선정.
 - 전문가 현장 및 지역민 면담을 통해 보전 의지 확인.
 - 무분별한 제작과 난립은 기존 유산의 가치 훼손 유발의 우려가 크므로 고려해야 함.

-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은 지역민들의 유물 제작, 활용, 의례의 진행 등 주민 의식 반영.

2. 법안 및 민속 문화유산 지정

2-1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2 지방 민속문화유산 지정

2-3 국가 민속문화유산 지정

- 국가 민속문화유산의 명칭 사용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벽수, 석장승, 당산이 사용되고 있어 용어 정립이 요구됨.

- 석장승 명칭을 한국 전통 민간신앙인 ‘벽수’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봄.

2-4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함.

-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여야 함.

- 제주 돌하르방과 벽수문화 공동체 복원과 관리체계 마련

- 벽수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과 전통신앙 의례의 지속 보전.

- 현존하는 벽수 중 유산적 가치가 높고, 지속 보전이 가능한 지역별 자료 선정.

- 전문가 현장 및 지역민 면담을 통해 보전 의지 확인.
- 무분별한 제작과 난립은 기존 유산의 가치 훼손 유발 우려가 크므로 고려해야 함.

-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 지역민들의 유물 제작, 활용, 의례의 진행 등 지역민의 의식을 반영함.

-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된 제주읍성돌하르방 2기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관할권 내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지방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수 중 전문가 혹은 지방의 추천으로 국가유산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 오랜 세월 민중들과 함께 마을이나 절, 그리고 마을, 성문, 절 지킴이로 세워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악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염원이나 소망을 들어 주던 석수는 한국인의 전통 민간신앙의 대표격 임.

- 현재도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일종인 나무로 만든 목석수나 우성목(偶成木)은 마을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송양과 공경이 깃든, 공동체 의례가 행해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임.

- 조각이라는 미술학적인 면에서도 예술가의 자유스러운 성정에서 빚어진 ‘파격미’와 더불어, 일반 민의 정성이 축적된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재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17세기에서 18세기 조선조 숙종과 영조 당시에 만연했던 전염병인 ‘천연두’라는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석상들은 인면, 괴면, 미륵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자연 속에서 민신(民神)이 되어 있으나, 300년이나 되는 시간 속에서 석상들은 마모가 되고, 그 형태도 손상되어 시급한 보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종교철학적인 면에서 불교 전래 이전의 민족 초기 종교였던 선도(仙道)의 ‘법수신양’과 맥이 닿아있어, 특히 과거 자연물 중 돌이나 나무 등을 신앙하던 원시 종교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돌하르방과 석(돌)장승이 지닌 ‘돌’로 된 석수 중심의 고찰이므로 나무로 된 목석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현재 목석수의 수가 더 많고, 마을 공동체가 협업하여 제작하고 마을제와 함께 장승제를 치르는 등 공동 의례가 살아 있으므로 차후 의례 시기에 맞춰 조사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제주읍성, 대정, 정의현성 돌하르방인 경우, 그 크기나 모양이 다르고 지닌 특성이 달라 제작 시기나 목적, 그리고 기능적 역할이 다른데, 이를 구분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1) 김두하, 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219쪽.
 - 2) 국가나 시·도민속유산의 돌로 된 장승의 명칭은 석장승이다.
 - 3) 유홍준·이태호, 1988, 「生命의 힘, 破格의 美」, 『장승』, 열화당, 158쪽.
 - 4) 국립광주박물관, 1985, 『벽수신앙 현지조사』.
국립민속박물관, 1988, 『강원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경기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경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충청남도, 1991,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충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전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남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7, 『경남지방 장승·숫대신앙』(-부록: 제주의 석상-).
 - 5) 김석익편, 2017, 『耽羅記年』, 제주문화원, 182쪽.
 - 6) 淡水契 편, 1954, 『增補耽羅誌』 명승고적조, 제주문화원, 82쪽.
 - 7) 이두재, 1991, 『태양을 안은 장승』, 삶과 꿈, 168쪽~170쪽.
 - 8) 국립광주박물관, 1985, 『벽수신앙 현지조사』, 84쪽.
 - 9)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1장 B면
 - 10)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1장 B면
 - 11)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13장 A면
 - 12) 벽수의 손에 든 방망이를 지역민에 따르면 '아기'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13) 정성권, 2015, 「제주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제 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14) 이두재, 1991, 『태양을 안은 장승』, 삶과 꿈, 206쪽~222쪽.
 - 15) 이종철, 1988, 「장승기행」, 『장승』, 열화당, 139쪽.
 - 16) 김동관, 2023, 『장승탐구』, 아루나, 111쪽
 - 17) 유홍준·이태호, 1988, 「生命의 힘, 破格의 美」, 윗책, 158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돌하르방이라는 용어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제주어 ‘하르방’과 돌로 제작된 장승을 뜻함.
 - 제주읍성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읍성을 지키는 수문장(守門將)과 지역민을 수호하는 수호신(守護神)으로 남상(男像) 이미지가 강하나, 대정성이나 정의성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여성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옷을 입거나 악세사리를 한 수줍은 표정의 여상(女像)의 모습도 있음.
 - 제주읍성과 정의·대정성 돌하르방은 그 형상이나 크기 면에서 제작 시기와 제작자, 영향 관계 등과 그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분석해야 할 것임.
- 근간에 들어 돌하르방이 제주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 관청이나 기관, 학교, 집 대문, 해수욕장 등에는 돌하르방 두 기를 세워서 경계하고 감시하는 수문장(守門將)이면서 수호신(守護神)으로서의 기능을 재현하고 있음.
 - 현재 세워지는 돌하르방은 부리부리한 통방울 눈과 주먹코 등 과거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을 판에 찍은 듯이 닮아있지만, 과거 돌하르방의 위엄과 센 힘을 자랑하는 무장(武將)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그 미학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음.
- 돌하르방이 제주읍성, 대정성, 정의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읍내 민의 수호신으로 세워졌다면, 현재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다양한 돌하르방이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패턴의 돌문화가 저절로 형성됨.
 - 최근 추세로 돌하르방을 세운다면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5기(2기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됨으로, 도지사 관할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되지 않음)의 돌하르방 외에, 정체불명의 새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제주 섬 안에 난립할 것으로 우려됨.

- 칠레의 이스터섬은 그 면적이 제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석상 ‘모아이’ 800여기가 서 있는데, 이 모아이 석상의 불가사의에 대한 여러 설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임.¹⁾
 - 모아이의 제작과 제작 후 이동 과정, 그리고 석상 제작 목적 등이 무한한 상상과 합쳐져서, 현재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조선조 18세기 후반 1754년 돌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예상되는 김몽규(金夢堐) 목사가 제주읍성 성문에 웅중석(翁仲石)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음.
- 육지부 영·호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가유산 혹은 지방유산으로 지정된 ‘벽수’들과 비교 고찰해 보면, 그 형태와 모양 면에서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육지부 벽수의 완성체이면서 그 기능적 특성도 ‘벽수’의 원형질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돌하르방의 기원이나 제작 시기, 형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육지부 석장승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었음.²⁾
 - 그간 돌하르방 기원에 대한 고찰로 ‘북방도래설’, ‘남방도래설’과 함께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영·호남 지역에 있는 벽수 계열의 석장승 영향이 컸음을 확신하고 있고, 제작 시기와 기능성, 형태 면에서 육지부 도래설에 힘을 싣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함.
 - 특히 장지국의 경우, 선도(仙道)문화 이론을 대정성 돌하르방에 적용하여,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대정성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가 서로 다를 것을 주장하고 있고, 대정성 돌하르방에는 선도적 요소가 잘 드러난 전통 고유의 본래 ‘법수’ 모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임.³⁾
 - 황시권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설치 동기와 기능성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육지 돌장승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제주읍성의 돌하르방 제작이 1754년 목사 김몽규(金夢堐)의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돌하르방은 돌장승에 비해서 미메시스(mimesis : 복제) 차원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획득했다고 주장함.⁴⁾
 - 아울러 황시권은 그는 제주에 있는 돌하르방 45기의 지방 민속 문화유산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설치된 두기를 포함해서 약 10기를 선정,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자고 주장함.

1) 존플렌리·폴반 지음(유정화 옮김), 2005, 『이스터 섬의 수수께끼』, 아침이슬.

2) 김유정, 2007,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정선, 2008, 「웅중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황시권, 2019,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 고찰」, 『탐라문화』 제 6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 장지국, 2007, 「제주도 돌하르방에 나타난 한국의 선도문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국학과 국학전공.

4) 황시권, 2019,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 고찰」, 『탐라문화』 제 6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새로운 돌하르방 제작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복제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규 제작 돌하르방의 위치와 규모, 제작자, 설치 주체를 표기하고, 돌하르방 제작 과정을 지방이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한편,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 규정 조례와 규칙도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현장을 찾아서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돌하르방의 위상을 밝힘과 동시에, 한국 벽수문화의 문화사적 가치를 찾고 공동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벽수’가 지닌 한국 전통 민간신앙인 선도문화에 나타난 고유의 유산적 가치를 정리하고자 함.
- 특히 관광용 혹은 관람용으로, 다양한 돌하르방이 곳곳에 난립해 세워짐으로써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새로운 돌문화가 형성하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화유산적인 측면에서 돌하르방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⁵⁾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육지부 벽수의 현장 조사를 통해 그 조성 시기, 벽수의 기능, 형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돌하르방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벽수’는 돌이라는 영구성을 띤 재료 활용으로 긴 세월 민중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층민에게 숭앙받아왔고, 선(仙)·무(巫)·불(佛) 등 전통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아 왔는데 그 관계를 각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함.
- 기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장승 중 국가 민속 문화유산과 지방 민속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아울러 ‘한국의 벽수’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여,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공동 등재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해 나감.
-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육지부 조사 대상 및 연구 자료에 대한 정보는 김두하(金斗河)가 저술한, 『벽수와 장승』⁶⁾이란 책을 주로 참고하고, 국가 민속 문화유산과 시·도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장승⁷⁾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더불어 이를 분석 고찰함.
- 석장승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45기 돌하르방 중심으로

5) 황시권, 2022, 「돌하르방의 문화적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탐라문화』제6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6) 김두하, 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219쪽.

7) 국가나 시·도민속유산의 돌로 된 장승 명칭은 ‘석장승’을 사용했다.

그 논지를 풀어갈 것임.

- 석장승 관련 취재 기사 및 구술 조사로 엮어진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한 박물관 조사 보고서⁸⁾ 그리고 관련 사진집이나 연구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함.
-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일차로 2024년 12월부터 제주도 돌하르방 조사를 시작했고, 이차로 2025년 1월부터 육지부의 한국 벽수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와 더불어 문헌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병행함.
- 필자의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해 소개하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58곳을 답사하여, 석장승 147기의 사진 자료를 확보한 상태임.
- 본고에서 촬영자의 게시가 없는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자료임.

- 본 연구에 대한 관련 용어로서 제주에서는 민속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돌하르방’을 사용하고, 육지부의 경우 벽수, 돌장승, 석장승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에 남아있는 민간신앙 고유의 기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벽수’란 용어로 통일해 사용함.

8) 국립광주박물관, 1985, 『벽수신앙 현지조사』.
국립민속박물관, 1988, 『강원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경북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충청남도, 1991,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충북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전북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남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7,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부록: 제주의 석상-),

II.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

1. 용어의 정의와 변천

1-1 돌하르방

- 돌하르방의 명칭은 웅중석(翁仲石), 우석목(偶石木), 우성목(偶成木), 무성목(武成木), 무석목(武石木), 벽수머리 등으로 불린 것으로 조사됨.
 - 무석목(武石木)의 용어는 나무나 돌로 된 사람 모양의 무인(武人)형 조각상을 뜻하는 말이지만, 나무로 제작된 것이 현전하지 않아서, 육지부의 나무 장승을 연상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성읍 지역민들은 돌하르방을 '벽수머리'로 불렀다는 점으로 보아 육지부 벽수 기능을 인식했을 수도 있음.
 - 제주 돌하르방은 기능상 육지부의 성문벽수나 마을벽수에 속하며, 제주읍성의 동·서·남문, 정의성 동·서·남문, 대정성 동·서·남문에 세워져 수문장(守門將)과 수호신(守護神) 역할을 함은 물론, 성안에 들어오는 왜적이나 역병(疫病)을 일으키는 사악한 기운과 잡귀를 차단해서, 성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음.

[그림 II-1] 제주목관아
소장 돌하르방



[그림 II-2] 관덕정 앞
돌하르방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 또 하르방 신체 일부인 돌가루를 이용해 아들 수태를 기원하거나 낙태를 바라는 민간 주술 종교적 역할도 담당하고, 육지부의 사찰 입구에 세워져 절 안과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사찰벽수처럼, 성문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위치표지(標紙)적 역할도 담당했다고 봄.
- 전 제주대 교수였던 고 김영돈은 돌하르방이 문지기인 수문장, 방어, 동자석, 수호신, 방사탑 기능을 했으며, 사기(邪氣) 침입을 막고, 전란을 방지, 고을 소재지 표지, 고을 존엄성 수호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함.⁹⁾

[그림 II-3] 제주성 동문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1930년대, 홍정표)



- 1971년 제주도 민속자료 지정 당시 아이들 용어인 ‘돌하르방’을 명칭으로 지방 민속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현재 남아있는 전체 47기 중 45기가 지정됨.
 - 제주읍성에는 4기씩 한 조가 되어 각각 동·서·남문에 8기씩 24기가 세워지고, 정의성에 4기씩 세 성문에 12기, 대정성도 4기씩 세 성문에 12기가 세워짐.
 - 크기를 비교해보면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신장이 157-238cm이고,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120-177cm, 대정현성 돌하르방 신장은 108-146cm로,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이 가장 큼.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문헌에서는 중국 진시황 때의 장군 ‘완옹중’의 본을 딴 장군석으로 ‘옹중석’이라 불렀음.
 -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에는 “영조 30년 청 건륭 19년인 갑술년(1754년) 목사 김몽규(金夢堧)가 성문 밖에 옹중석을 세웠다.”(甲戌 三十年 清乾隆

9) 김영돈,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경신인쇄사.

十九年 牧使金夢燐設翁仲石於城門外)라고 기술됨.¹⁰⁾

-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담라지(增補耽羅誌)』(1954년)에는 웅중석(翁仲石)에 대해 “제주읍성(濟州邑城)의 동문(東門)·서문(西門)·남문(南門) 등의 3개 문밖에 있었다”고 하면서, “영조 30년(1754년)에 목사 김몽규(金夢燐) 창건”¹¹⁾이라고 기록하고 있음.

1-2 장생(長生), 장생(長柱), 장승(長承)¹²⁾

- 장생(長生)은 장승의 원초적 형태로 산천비보(山川裨補)를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기원하는 것임
 - 9세기 말 도선(道詵 827~898)국사가 영암 도갑사(道岬寺)에 세웠다고 하는 황제의 무궁한 장생을 기원한다는 의미의 ‘황장생(皇長生)’과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국장생(國長生)’이 있고, 양산 통도사 손내천과 상천리의 ‘국장생’ 등에도 있음.
 - 이는 신라나 고려시대 때부터 바위에 글자를 각자(刻字)한 ‘선돌’(立石)과 같은 것으로, 풍수설에 의해 허한 곳을 막아 보해주는 비보(裨補)적 역할이 컸음.
 - 역사 기록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생(長生)은 신라 경덕왕 759년에 전남 장흥에 보림사를 짓고, 그 이후 884년에 보조선사(普照禪師)가 세운 창성탑비(彰聖塔碑)에 ‘장생표주(長生標柱)’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임금의 장생과 만수무강을 빌며 사찰의 격을 높이기 위한 배경에서 생겨난 용어임.
 - 장생(長生)은 황제나 국가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던 나무나 돌기둥을 세워 절의 품격을 높이던 기능과 도선국사(道詵國師)의 풍수도참(風水圖讖) 사상 도입에 따른 비보(裨補)사상이 합쳐진 형태로 봄.
- 조선조에 오면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흙무더기인 후(垸)를 두고, 거기에 나무에 얼굴 모습을 그린 장생(長柱)을 세워 놓았음.
 - 후(垸)는 길을 표시하는 의미가 강하고 1527년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당승후’ 라는 표기가 있으며, 또 오리돈(五里墩)이라고 표기됨.
 - 장생(長柱)의 생(柱)은 “원래 기억할 것을 적어서 붙이는 목찰(木札)”로 지찰(紙札)의 뜻을 지님.
 - 길에 세워서 이정표의 역할과 마을 수호적 기능을 지닌 것을 노표장생(路標長柱)이라 하고, 이러한 표지판은 관로마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장승이 박혀 있었다고 함.
 - 장생의 주 기능은 비보(裨補), 성문 수호, 경계표, 불법 수호 등임.

10) 김석익편, 2017, 『耽羅記年』, 제주문화원, 182쪽.

11) 淡水契 편, 1954, 『增補耽羅誌』 명승고적조, 제주문화원, 82쪽.

12) 김두하 외, 2004, 『장승과 벽수』, 대원사, 35쪽-47쪽.

- 곧 원래 명칭은 장생이었으나 음운이 장승(長承)으로 변천되고, 이 외에 장성, 장신(將神)으로도 부름.

[그림 11-4] 황장생(영암)



[그림 11-5] 국장생(영암)



1-3 석장승(돌장승)

- 재질에 따라 장승은 돌장승과 목장승으로 구분되나, 돌장승은 영구적이지만, 목장승은 나무가 부식해 오랜 시간 보전에는 한계가 있음.
- 문화유산인 국가나 시·도의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돌로 된 장승의 명칭은 ‘석장승’이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돌장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 시·도 민속 문화유산으로 대전광역시 법동 석장승 등이 지정 보존되고 있음.(<표5> 참조)
 -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통영시 문화동 벽수 등이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음.(<표6> 참조)

1-4 벽수

- 한국 고대 전통 민간신앙 선도(仙道)의 법수(法首) 모습이 조선 중종 대 이맥(李陌, 1455-1528)이 편찬한 『태백일사(太白逸史)』에 잘 나타나고 있음¹³⁾

13) 이맥, 『태백일사』, 임승국 번역·주해,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198-199쪽.

- 이 책 「마한세가상(馬韓世家上)」에는, “옛적 이미 우리 한족(桓族)이 유목 농경하던 때에 신시(神市)의 가르침이 열렸다. 땅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적(積)을 하나로 하고, 음(陰)은 십거(十鉅)를 세우고 양(陽)은 무궤(無匱)를 만들고 충(衷)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봉황은 날아 모여들어 백아강(白牙岡)에 살고, 선인은 법수교(法首橋)로 오고 갔으니 법수(法首)는 선인의 이름이다”(昔己爲我極族逝牧農耕之所而及神市開天以土爲治一積而陰立十鉅而陽作无匱而衷生焉鳳凰聚棲於白牙岡仙人來往於法首橋法首仙人名也)
 - 같은 책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주해에 이르기를 “때에 큰 나무를 환웅의 신상(神像)이라 하고, 이에 경배한다. 신령스러운 나무는 이를 웅상(雄常)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상(常)은 늘 있음을 뜻했다”.(時大對樹爲桓雄神像而拜之神樹俗謂之雄常常謂常在也)¹⁴⁾라고 했음.
 - 같은 책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오제(五帝)의 주에 “오방(五方)에 각기 사명이 있으니, 하늘에서는 제(帝)라 하고, 땅에서는 대장군이라 한다. 오방을 감독하고 살피는 자를 ‘천하대장군’이라 하고, 지하를 감독하고 살피는 자를 ‘지하여장군’이라고 한다.”(五方各有司命在天日帝在地日大將軍督察五方者爲天下大將軍督察地下者爲地下女將軍也)¹⁵⁾라고 했음.
 - 이처럼 「마한세가상(馬韓世家上)」과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에 선인 법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선인 이름인 법수는 법수교를 오가면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 민간신앙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영·호남 지역민은 석장승을 대부분 벽수라고 하는데, 이는 법수(法首)가 ‘벽수’로 음운이 변천되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벽수는 법수, 벽수, 법시, 벽시라고도 함.
 - 그 기능은 액막이, 부락평안, 부락수호, 잡귀무사, 해운무사, 풍어 등을 담당함.
- 곧 한국의 선도 사상 중 법수(法首)는 백아강으로 들어가기 위해 법수교를 건너는 악귀들을 주력(呪力)으로 물리치고 침입을 막는 불로장생술을 익힌 선인(仙人)을 지칭한 말임.
- 민간에서는 선경과 같은 경계 절승한 풍경 등을 동경하고 선인을 구상해 자신들 가까이 둬으로써, 위기나 재해를 벗어나고 법수를 통해서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 부락 수호신인 선인 법수가 보호해주는 마을이나 영역에 살고 있다는 금지와 안도감이 질병, 재해, 침략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무나 돌로 사람 모습으로 조각하여 세우고 신력이 나타나도록 재물을 바치고 제(祭)를 행하면서 이에 의지함.

14) 윗책, 162-163쪽.

15) 윗책, 154-155쪽.

- 역사적으로 벽수의 위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시기는 조선 영·정조 시대로,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한 유행성 질병인 천연두나 역질이라고 하는 두창(痘瘡) 등 전염이 쉬운 ‘염병(染病)’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벽수를 새겨 활용했던 것으로 보임.
 - 민간에서는 역병(疫病)을 옮기는 귀신을 역신(疫神), 두신(痘神), 별신(別神), 손님, 마마, 역귀(疫鬼)라고 했음.
 - 벽수는 역병을 가져오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험상궂은 얼굴, 통방울 눈과 주먹코, 무서운 치아, 채수염, 그리고 혀를 내보이거나, 죽일 팔로 달려드는 힘 있는 손과 무기 등을 이용해서 이들을 막아냄.
- 제주에서 돌하르방 제작 설치 시기가 육지부 벽수 설립이 유행되던 때와 비슷한 데, 이는 돌하르방 기능이 성문 지킴이인 수문장 역할만이 아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역신 퇴치와 같은 수호신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육지부 벽수 기능과 일치한다는 추정이 서게 함.
- 조선조 후기에 와서 벽수가 여기 저기 세워졌고, 이정표를 나타내는 노표 장승의 성격과는 달리, 지역민들의 기원을 듣고 감화시켜주는 민간신앙의 주체로, 마을 공동체를 병마나 자연재해, 역신으로부터 수호하는 신적 기능, 산천이나 마을의 강한 지세를 누르거나 약하면 보충해주는 비보 기능, 사찰 입구에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호법신(護法神)의 기능을 함.¹⁶⁾
 - 민속학적 영역의 학문적인 용어로는 민간 기원이나 기능, 의례적 측면 등에서 ‘장승’보다는 벽수 용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표 II-1〉 지역에 따른 벽수의 이칭¹⁷⁾

지역	명칭
전북, 경남	장승, 장성, 벽수, 벽시, 법수, 법시 당산, 할아버지, 할매
충남	장승, 신장, 수살막이, 수살막이, 수살목
경기도	장신
평안, 함경도	당승, 돌미륵
제주도	돌하르방, 무석목, 우석목, 웅중석, 벽수머리

16) 이두재, 1991, 『태양을 안은 장승』, 삶과 꿈, 168쪽-170쪽.

17) 국립광주박물관, 1985, 『벽수신앙 현지조사』, 84쪽.

■ <표 2-1>을 보면

- 전북 경남 지역은 장승이라고도 하지만 ‘벽수’ 명칭이 우세함.
- 장승은 ‘장성’, ‘장신(將神)’으로도 칭하고, 그 기능에 따라 ‘수살막이’, 목장승은 ‘수살목’이라 칭함.
- 할머니 당산 혹은 할아버지 당산이라고 하는 ‘호칭’은 당산에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을 지칭함.
- 원래 ‘당산’은 남부지방에서 토지신이나 부락 수호신을 모셔두는 한 칸짜리 신당, 즉 당집이 있는 형태의 성역을 일컬음.¹⁸⁾
- 마을 거리의 수호신이 있는 당산은 복합으로 흙무더기, 돌무더기와 더불어 짐대(진대, 솟대), 석인, 선돌이 세워짐.

2. 돌하르방과 벽수의 친연성

2-1 제작 시기

- 돌하르방 제작에 관한 기록은 영조30년(1754년) 제주목사 김몽규(金夢堦) 목사의 지시로 중국 진나라 장수인 ‘완웅중’ 모습을 딴 ‘웅중석’을 제작해 제주읍성의 동문 · 서문 · 남문 성문 앞에 세우게 했다는 기록이 전함.
 - 김정선은 제주읍성에 설치된 돌하르방이 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각 읍성 별로 돌하르방 제작과 조성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¹⁹⁾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에 대한 제작 시기를 영조 30년(1754년)으로 그 설립 시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대정성이나 정의성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그 모습과 제작 방법이 달라, 각기 별개로 진행되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는 형편임.
- 시기상으로 육지부의 영·호남 지역 벽수의 제작 시기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제주읍성 돌하르방 제작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문헌 기록은 설득력이 있으며, 육지부 벽수 영향이 컸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또 육지부의 벽수 제작 유행 시기가 돌하르방 제작 시기와 그 연대가 거의 유사한 점으로 보아도, 18세기 후반 김몽규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거의 확실함.

18) 이두재, 윗책, 225쪽.

19) 김정선(2009), 「웅중석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33호, 207쪽.

- 방어사 김몽규는 영조 28년(1752년)에 도임하여 그 후 2년이 지나서 파직되었으나, 웅정석을 세 성문 밖에 건립하고 운주당(運籌堂)과 관덕정을 중창함.²⁰⁾

- 그는 제주목사로 오기 전 1733년 해남 현감, 1747년 경상 좌수사를 역임했던 이력과 함께, 이 시기 유행처럼 행해진 벽수 제작이나 혹은 제작 경험을 듣는 등 이미 시청각적 경험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조선왕조실록』숙종과 영조 대, 여역(癘疫)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잘 나타난 기사를 정리해 보면,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동일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조선왕조실록』숙종 40년(1714년) 기록

- 전교(傳敎)하기를, 오늘 제주의 공인(貢人)을 다시 차비문(差備門)으로 불러들여 본주(本州)의 진정(賑政)과 모맥(牟麥)의 형편과 여역(癘疫)의 지식(止息) 여부를 물었더니, 이른바 여역은 염병도 아닌데 너 댕새 누워 앓다가 1개월 안에 4백여 명이나 죽었다. 지극히 놀라우며 참혹하다. 의사(醫司)로 하여 이에 상당한 약품을 시급히 넉넉하게 보내어 각별히 구료(救療)하도록 하라고 함.(敎曰: 今日濟州貢人, 又招至差備門, 問本州賑政, 牟麥形止, 染患寢息與否矣. 所謂癘疫, 非染病, 四五日臥痛, 一朔之內, 物故四百餘名云, 極爲驚慘. 令醫司, 相當藥物, 急速優數下送, 以爲各別救療之地²¹⁾)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 올리기를, “본도(本道)에 여역(癘疫)이 크게 번져 5천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 척의 약으로는 모두 구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라 하니, 임금이 의사(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물(藥物)을 더 보내어 주라고 하였다.(乙酉/濟州牧使狀陳本島癘疫大熾, 死亡五千餘名. 以數百貼之藥, 勢難盡救, 上命醫司, 加送相當藥物²²⁾)
- 역질(疫疾)이 크게 유행하여 1천여 명이 죽었다.(乙丑/濟州大疫, 死亡千餘人²³⁾)

- 『조선왕조실록』영조 26년(1750년), 영조 33년(1757년) 기록

- 영조 26년(1750년), 이달에 여역으로 사망한 자는, 경기가 3천 3백 82명, 관동이 5백 72명, 호서가 6천 2백 66명, 호남이 1만 6천 7백 52명, 영남이 1만 7백 39명, 해서가 1만 1천 3백 71명, 관서가 1천 8백 53명, 북관이 1만 2천 1백 41명, 강도가 2천 3백 91명, 송경이 1천 5백 20명, 제주가 8백 82명이었음 (是月, 癘疫死亡, 京畿三千三百八十二名, 關東五百七十二名, 湖西六千二百六十六名, 湖南一萬六千七百五十二名, 嶺南一萬七百三十九名, 海西一萬一千三百七十一名, 關西一千八百五十三名, 北關一萬二千一百四十一名, 江都二千三百九十一名, 松京一千五百二十名, 濟州八百八十二名²⁴⁾)

20) 담수계(淡水契) 편(1954),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814쪽.

21)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6장 A면

22)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1장 B면

23)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1장 B면

- 영조 33년(1757년)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역질(疫疾)이 크게 번져 사망한 자가 5백여 명에 이르렀고, 경기(京畿)·함경(咸鏡)양도(兩道)에 더욱 치성(熾盛)하여 죽은 자가 수없이 많음.(濟州三邑大疫, 死亡至五百餘人, 京畿, 咸鏡兩道尤熾, 死者無數²⁴⁾)
- 한 해에 유행하던 전염병 질병인 염병(染病)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제주에서도 한 해에 500명에서 800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악한 악귀 퇴치 등을 육지부처럼 벽수 고유의 본래 기능을 활용해서 퇴치하고자 했을 것으로 함.
 - 두창(痘瘡)인 천연두와 역질(疫疾)을 일으키는 원인을 역신(疫神)의 침범으로 보았는데, 제주에서는 마마 질병의 명칭을 ‘마누라’로 부름
 - 제주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의해 치러지는 별신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초에 각 마을에 있는 포제단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인 포제(醺祭)를 지낼 때 여단(厲壇)을 설치해서 여제(厲祭)를 지냄.
 - 무속의례에서는 천연두나 피부병 퇴치를 위해 당신(堂神)에 빌거나 굿 의례 중 ‘마누라 배송’ 의례가 대표적 사례임. 이는 예방 차원이 아닌 주술적인 힘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바란 것으로 보임.
 - 당시 상황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여역(癘疫), 천연두, 마마 등의 질병이 온 국가에 만연했는데 의학적 처방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벽수를 활용해서 막는 역할을 하고 치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 숙종과 영조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두창(痘瘡) 질병과 역병(疫病), 염병(染病)이 만연하면서, 이를 퇴치하기 위해 마을 당산이나 절, 마을에 장군형 벽수 설립이 한창 유행처럼 이루어짐.
- 육지부 벽수의 제작 중 그 시기가 가장 이른 사례로는 전라북도 부안 읍성 벽수가 그리한데, 숭정 후 44년 신해년(崇禎後 四十四年 辛亥年)인 현종 12년(1671년)에 제작되고, 서문 안에 있는 석간의 제작 시기는 숙종 15년(1689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 안 당산의 벽수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이들 벽수는 부안읍성을 지키던 ‘성문벽수’로 수문신의 특성과 수호신적 기능을 했으며, 성문 안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읍성 동·서문에 있던 벽수들을 당산으로 옮겨 한 쌍의 장군, 곧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두 기가 각각 있고, 특히 동문의 하원당장군은 제주 돌하르방의 얼굴 이미지와도 매우 유사함.

24)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13장 A면

25)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1장 B면

[그림 11-6]
상원주장군(부안 서문안)



[그림 11-7] 부안 서문안 당산



- 이 시기에 마을벽수의 영향으로 절 입구에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사찰벽수는 불회사, 실상사, 운흥사지, 영은사지, 관룡사지, 남장사, 대곡사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나주 운흥사(雲興寺)의 벽수는 절 입구에 세워졌는데,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하원당장군의 뒷면에는 ‘화주승변학강희58년2월일목행별좌김노□이(化主僧卞學康熙五十八年二月日木行別座金老□伊)’라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어, 숙종 45년(1719년)에 화주승 변학과 신도들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나주 불회사 입구에도 남성형 벽수인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여성형 벽수인 ‘주장군(周將軍)’이 유명하며, 그 조각 수법이나 형태 면에서 운흥사 벽수와 같은 수법으로 제작되어 운흥사의 건립에 맞춰 숙종 45년(1719년) 즈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II-8]
하원당장군(부안 동문안)



[그림 II-9]
불회사 주장군



[그림 II-10]
불회사 상원당장군



[그림 II-11]
운흥사 하원당장군



[그림 II-12]
운흥사 상원주장군



- 남원시 실상사에는 불가의 해탈을 상징하는 해탈교를 건너기 전에 ‘옹호금사축귀장군(擁護禁邪逐鬼將軍)’ 한 기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바로 ‘대장군(大將軍)’과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이 수염을 날리면서 마주 보고 양편에 서 있음.

- 상원주장군의 뒷면에 있는 기록을 통해 벽수 제작은 옹정3년 을묘입동(雍正三年乙卯立)

冬), 곧 조선 영조 원년(1725년)과 신해년 오월(辛亥年 五月), 곧 영조 7년(173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II-13] 옹호금사축귀장군



[그림 II-14] 대장군



[그림 II-15] 상원주장군



- 경남 함양군 영은사지(靈隱寺址)벽수에는 명문으로 ‘우호대장군(右護大將軍)’, ‘좌호대장군(左護大將軍)’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사찰 경계와 역병, 악귀, 잡귀의 출입을 막는 불법을 보호하는 신장임.

- 제작 연대는 좌호대장군 우측 하단에 새긴 ‘건륭삼십년을유년이월(乾隆三十年乙酉年二月)’이란 기록이 있어 조선 영조 41년(1765년)에 제작됨.
- 이처럼 주요한 육지부 벽수의 제작 시기가 영조 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돌하르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아,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 관련한 문헌 기록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처럼 성을 지키는 수호신인 성문벽수로, 명문이 있는 벽수는 이미 살핀 부안 동·서문안 당산의 벽수 외 여수의 연등동 전라좌수영성 서문에 있던 ‘남정중(南正重)’과 ‘화정여(火正黎)’, 강진 병영성 벽수, 해미읍성 벽수, 무안읍성 벽수 등을 들 수 있음.

- 1417년에 세운 강진군의 ‘전라병영성’의 ‘홍교’ 옆에는 문신과 무신 형상의 ‘수문장(守門將)’이 있는데, 15세기 초에는 ‘병영성’ 서문 앞에 세워져 있다가 1984년에 분실되어 새로 제작됨.

- 여수의 연등동 '전라좌수영성'에 세워진 '남정중(南正重)'과 '화정려(火正黎)' 두 기 중 화정려의 뒷면에는 '무신사월이십팔일오시립(戊申四月二十八日午時立)'이라고 기록되고 있어, 정조 12년(1788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음.
- 경남 통영 문화동 석수는 한 기만 세워진 돌석수로 몸통 앞면에 '토지대장군(土地大將軍)'이라고 새겨있고, 뒷면에는 '광무십년병오팔월일동낙동(光武十年丙午八月日同樂洞)'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대한제국(고종) 10년(1906)에 세워진, 마을을 지키는 마을석수에 속하고 있음.

[그림 II-16] 통영 문화동
토지 대장군



[그림 II-17]
토지대장군 뒷면



〈표 II-2〉 석수 제작 시기

소재지	명칭	명기 기록	조성 시기
부안군부안읍 동서문안 당산	석장승	崇禎後四十四年辛亥年(동문) 숙종 15년 1689년 2월 화주는 □□선대부인(□□善大夫人) 김 진창□□□(金辰昌□□□)대원 신장세순(大院臣張世洵)(서문)	1671(현종 12년) 1689(숙종 15년)
나주운흥사지, 불회사	석장승	'化主僧卞學康熙五十八年二月日 木行別座金老□伊(화주승변학강 희58년2월일목행별좌김노□이)'	1719(숙종 45년)
남원군산내면 실상사	석장승	雍正三年乙卯立冬(대장군) 辛亥年五月(상원주장군)	1725(영조 원년), 1731(영조 7년)

소재지	명칭	명기 기록	조성 시기
무안군성남리 무안읍성	석장승	鄉約契帖에의거	1741(영조 17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읍성 돌하르방	『탐라기년耽羅紀年』甲戌 三十年 清乾隆十九年 牧使金夢燐設 翁仲石於城門外	1754(영조 30년)
함양군 영은사지	석장승	乾隆三十年乙酉年二月	1765(영조 41년)
창녕군 관룡사지	석장승	乾隆三十八年 癸巳十月日木廳 成造	1773(영조 49년)
여수시 연등동	석장승	戊申四月二十八日午時立	1788(정조 12년)
경북 상주시 남장사	석장승	壬辰九月立	1832(순조 32년)
통영시 문화동	벽수	光武十年丙午八月日同樂洞	1906 (대한제국 10년)

■ <표 2-2>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숙종과 영조 대에 걸쳐 많은 벽수 제작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이 시기는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로, 설립 목적은 사기(邪氣)나 악귀 퇴치 등과 같은 벽수 고유의 본래적 기능을 활용하여 염병(染病)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자 함.
- 제주읍성 돌하르방 설립 목적도 육지부 석장승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성문벽수로 부안, 무안, 장흥, 병영성 벽수의 성문 지킴이처럼 성문 수문장으로서의 목적만이 아니라, 악귀를 물리쳐서 질병을 퇴치하는 역신(疫神) 추출 등 수호신의 역할이 주 기능임.

2-2 형상적 측면

■ 돌하르방이나 벽수의 형상은 역할과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의 예술품으로도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음.

- 벽수 형상은 인면형(人面型), 귀면형(鬼面型), 미륵형(彌勒型) 등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됨.
- 인면형은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한 것이며, 귀면형은 나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불교의 사천왕상 혹은 무속의 방상씨나 처용탈처럼 귀신에 대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험악한 안면을 지님.
- 미륵형은 수인(手印)이 있는 점이 특징이며, 불법 수호를 위한 사찰벽수나 마을수호를 위해 마을 어귀에 세워진 마을벽수로, 이마에는 부처에 있는 백호가 박혀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형상적 측면에서 인면형에 속하고, 무사(武士)인 장군 형상을 함.
 - 육지부 괴면형 벽수가 지닌 허라든가, 수염,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사악한 괴질이나 역병을 가져오는 잡귀신을 물어뜯는 무기가 되는 것에 반해,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병거지형 모자, 큰 눈방울, 주먹코, 튀어난 볼의 얼굴 형상 등 대개 거의 인면형이며, 큰 팔과 큰 손이 잡귀들을 누를 수 있는 압권의 형상임.
- 특히 대정성, 정의성의 돌하르방은 인면형이면서도 미륵형으로 자애로운 모습도 지니고 있는데, 제주읍성 돌하르방과는 자연스레 구분됨.
- 제주읍성이나 두 현성의 돌하르방이 모두 손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반해, 육지부 벽수는 대부분 몸통만으로 제작되고 대부분 손의 형태가 생략되고 있음.
 - 육지부 벽수로 손이 있는 사례로는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마치 손에 방망이를 든 것처럼 보이며²⁶⁾, 악을 물리치는 방상씨의 가면처럼 보이기도 함.
 - 한편 전북 순창군 남계리, 순화리,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벽수는 두 손이 모아져 있는 모습으로 대정현의 돌하르방과 유사한 미륵형 벽수임.

[그림 II-18] 순창 남계리 벽수



[그림 II-19] 대정읍 남문 돌하르방



26) 벽수의 손에 든 방망이를 지역민에 따르면 '아기'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그림 II-20] 곡성군 가곡면
할아버지



[그림 II-21] 곡성군 가곡면 할머니
미륵계열의 수인



- 육지부 벽수와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공통으로 악귀를 물리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웅중석과 같은 이미지는 영암 쌍계사지 ‘주장군’, ‘당장군’, 운봉면 서천리 ‘진서대장군’, 남원 실상사 ‘웅호금사촉귀장군’ 등의 용맹을 나타내는 장군형 벽수로 명문 표현에서도 유사다고 할 수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거칠고 투박하며 강한 힘을 지닌 큰 손, 그리고 왕방울의 눈과 뿔뿔한 코를 지닌 무사 얼굴의 위용을 과시함.
 - 반면 육지부 벽수는 채수염을 날리고, 날름대는 혀,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 단단하고 무서운 썬레이빨(치아) 등을 지니고 있어서, 방상씨나 처용탈의 모습으로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악한 것에 대응하는 용맹성이 드러나 보임.
- 육지부의 마을벽수나 성문벽수는 인면형이면서 미륵형인 경우가 많은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대개가 인면형으로 볼 수 있음.
 - 육지부 벽수의 형상은 제주읍성의 돌하르방 제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형태나 외형과 닮아있는 벽수로는 전북 부안읍 동문 안의 ‘상원주장군’,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 전북 남원 운봉면의 서천리, 권포리 벽수, 전북 남원 운봉면 북천리 벽수,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할아버지 당산(벽수) 등을 들 수 있음.
 - 성문벽수인 부안 동문 안 당산에 있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하원당장군’은 병거지형

모자,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과 코, 이마의 백호, 다문 입 사이에 살포시 미소 짓는 얼굴, 치아가 내보이는 인면형의 전형적인 모습임.

- 특히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석수의 얼굴은 병거지 모자와 얼굴 모습이 돌하르방과 닮아있으며,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기능을 잘 보여줌.
 -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이빨까지는 내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22] 주천면 호기리
석수



[그림 II-23] 무안군 해제면
할아버지 당산



- 절 입구에 세워진 사찰석수들은 화강암의 돌기둥을 이용하여 머리와 몸체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조형 면에서는 ‘금강역사’나 ‘사천왕상’의 이미지와 닮아있음.
 - 실상사 절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의 모습도 돌하르방의 외모나 기능 면에서 많이 닮아있음.
 - 절에 세워졌던 호법형 석수로 대표적인 것은 전북 남원 실상사의 ‘옹호금사축귀장군’, ‘상원주장군’과 ‘대장군’, 전남 영암군 남송리 쌍계사지 ‘주장군’과 ‘당장군’ 등을 들 수 있음.
- 전북 남원 실상사 입구의 3기의 석수 ‘옹호금사축귀장군’, ‘상원주장군’과 ‘대장군’은 병거지와 부리부리한 눈과 방울코, 그리고 큰 귀가 조각되어 있으며, 입에는 긴 수염과 짧은 수염, 치아까지 잘 갖춰져 있음.
 - 특히 가슴 앞에 내린 양쪽으로 훑날리는 수염은 돌하르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상인데, 육지부의 석수들이 지닌 채수염 역시 장군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기에 충분함.

- 영암 쌍계사지인 영암군 남송리 인곡마을 옛 절터에서 불법을 수호하던 사찰벽수 두 기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周將軍(주장군)’과 ‘唐將軍(당장군)’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음.
 - 절 입구의 사천왕상 이미지와는 달리 머리에는 모두 벵거지를 쓰고 있고, 화강암으로 조각된 부리부리한 눈, 큰 코, 그리고 굵은 치아가 섬세하게 조각되고 이마의 주름은 구겨져서 화가 난 모습을 잘 보여줌.
 - 남성성과 괴기스러움, 사악한 악귀와 싸우는 표정을 잘 표현한 수준 높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음.
- 마을벽수로 전북 남원 운봉면의 서천리 당산에 모셔진 마을 수호신인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은 맞은 편에 서 있는 남편이라고 전해지는 방어대장군(防禦大將軍)과 부부 사이임.
 - 서쪽을 비보(裨補)하는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 여상이고, 아내라고 하는 데, 실제 모습은 여상이기보다는 남상으로 보이며 벵거지, 주먹코, 다문 입술 등 사실적인 얼굴이 돌하르방과 매우 유사함.

[그림 11-24] 영암군 쌍계사지 주장군



[그림 11-25] 영암군 쌍계사지 당장군



- 마을벽수인 전북 남원 운봉면의 권포리나 북천리 벽수 역시 마을의 수호신 격 벽수로, 돌하르방의 형태와 기능 면에서 비교할 만함.
 - 벵거지는 쓰지 않았지만, 눈, 코, 다문 입 등 전체적으로 그 형태가 유사함.
- 마을벽수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벽수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벵거지를 쓴 미륵불처럼 보이는데, 이미지가 돌하르방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음.
 - 득남, 기복, 수호, 치병을 위해 기원.

-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석수 중 여상을 ‘할머니 당산’, 남상을 ‘할아버지 당산’ (그림 II-23)이라고 하는데, 민간 신앙처인 석수나 짐대, 당간을 모신 신앙처인 ‘당산’을 석수의 명칭으로 차용 한 것으로 보임.

- 이종철(李種哲)은 장승을 인상 형태 면에서 소박한 인면형(人面形), 왕방을 눈, 주먹코, 송곳니를 드러낸 귀면괴수형(鬼面怪獸形) 불교조각과는 다르게 질박하고 자비스럽고 친밀감 있는 미륵형(彌勒形), 성 신앙 대상으로 남성 성기를 표현한 남근형(男根形), 문관과 무관을 나타낸 문무관형(文武官形) 기타 석비형, 입석형, 돌무더기형을 들고 있음.²⁷⁾

[그림 II-26] 남원 운봉면
권포리 동방축귀대장군



[그림 II-27] 남원 운봉면
권포리 서방축귀대장군



〈표 II-3〉 석수의 형상에 따른 분류

형상	인면형	귀면형	미륵형	인면형과 미륵형
	제주읍성 돌하르방	영암군 금정면 쌍계사지 석수	순창 남계리· 순화리 석수	대정현·정의현 돌하르방
	운봉면 권포리 석수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 석수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석수	무안군 법천사 석수
	운봉면 서천리 석수	남원 주천면 호기리 석수	장흥 관산읍 방촌리석수(여상)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석수
	부안동 · 서문안 석수	전남 곡성군 율천리 석수	음성군 원남면마송 리 석수	경남 창령 관룡사 석수
	불회사 석수	충무시 문화동 석수(토지대장군)	유성구 화암동 석수	장흥관산읍 방촌리 석수

27) 이종철, 1984, “장승과 솟대에 대한 고고민속학적 접근 시고”, 윤무병 박사 회갑기념논총, 국립광주박물관, 1985, 『석수신앙 현지조사』, 84쪽, 재인용.

형상	인면형	귀면형	미륵형	인면형과 미륵형
	운흥사 벽수	장흥 관산읍 방촌리 벽수 (진서대장군)	서산군해미읍성 벽수	
	무안읍성 벽수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벽수		
	남원 인월면 의지리 마을 벽수	경북 상주시 남장사 벽수		
	대전시읍내동 뒷골 벽수	경북 의성군 대곡사 벽수		
	부안백산면 죽림리 공작리 벽수	대전시 동구 비룡동 줄골 벽수 (천하대장군)		
	대전시 법동 벽수	함양 영은사지 벽수		
	대전시 대덕구용호 동 벽수(할아버지)	통영시 문화동 벽수		
	무안군 총지사지 벽수	여주시 연등동 벽수		
	여주시 동산동 벽수			
	여주시 봉산동 벽수			
	여주시 시전동 (선소마을) 벽수			
	여주시 굴강벽수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통영시 삼덕리 원향마을			
	통영시 명정동 논개고개			
	광주 서원문 밖 벽수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내벽수 (기삼석대웅)			

2-3 기능적 측면

- 김영돈은 웅중석(翁仲石)인 돌하르방을 동문·서문·남문 세 곳의 성문 앞에 8기씩 24기를 세워 읍성을 수호하고 있었다고 봄.
 - 그 기능은 성문(城門)이나 주민 수호(守護) 기능, 방액(防厄)과 방두신(防痘神) 역할 등

주술 종교적 기능, 성문 위치 표지 및 진입 금지적 기능이 있다고 정리함.

■ 웅중석의 유래를 다룬 기사로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제20권)「경사문(經史文)」편에 ‘완옹중(阮翁仲)’에 대한 기사가 있음.

- “완옹중은 안남(安南) 사람인데, 키는 2장(丈) 3척(尺)이 되고 기품은 단정하면서 씩씩하여 보통 사람과는 아주 다름.”(阮翁仲安南人身長二丈三尺氣質端勇異於常人).
- “그는 젊었을 때 현리(縣吏)가 되어서 독우(督郵)에게 매를 맞고 탄식하기를,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을까?’ 하고,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 경서와 사기를 연구함”(少爲縣吏爲督郵所笞歎曰人當如是耶遂入學究書史).
- “시황(始皇)이 천하를 병합시키고 웅중에게 병권을 맡겨 임조(臨洮)를 지키도록 하였는데, 성명이 흉노(匈奴)에게 멸치자 진(秦)나라는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며 죽은 후에는 동상을 만들었다.”(始皇併天下使掌兵守臨洮聲振匈奴秦以爲瑞死鑄銅爲其像此未著於史也).
- 『한서(漢書)』(권27)「오행지하지상(五行志下之上)」에 “진시황 26년(기원전 221년)에 키가 5장(丈)이고 신발이 6척인 거인 12명이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임조현(臨洮縣)에 나타나는데, 진시황이 길조로 여겨 천하의 병기를 녹여서 금 사람 12기를 만들어 이 거인을 형상하였는데 14년 뒤에 진(秦)이 망했다.”(史記 秦始皇帝二十六年，有大人長五丈，足履六尺，皆夷狄服，凡十二人，見于臨洮。天戒若日，勿大爲夷狄之行，將受其禍。是歲始皇初并六國，反喜以爲瑞，銷天下兵器，作金人十二以象之。後十四年而秦亡)라는 내용이 보임.
- 『진서(晉書)』권27 지17「오행지(五行志)」에 “위명제(魏明帝) 경초(景初) 1년(237)에 구리로 거인 2개를 주조하여 사마문(司馬門) 밖에 늘어세우고 ‘웅중’이라 불렀다.”(景初元年，發銅鑄爲巨人二，號曰翁仲，置之司馬門外。案古長人見，爲國亡。長狄見臨洮，爲秦亡之禍，始皇不悟，反以爲嘉祥，鑄銅人以象之。魏法亡國之器，而於義竟無取焉。蓋服妖也。)라고 하는 내용이 있음.

■ 김영돈이 성읍에서 조사한 돌하르방의 명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벽수머리’가 있음.

- 벽수는 법수에서 온 말로, 선인(仙人)이며 법을 지키는 우두머리를 ‘법수(法首)’라고 함, 제주읍성 돌하르방 역시 벽수의 일종이며, ‘머리’는 수(首)를 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돌하르방은 장승과 벽수 기능이 혼유되고 있으나 ‘장승’보다는 ‘벽수’로서의 성격이 강함.

-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에 의하여 국가의 연장과 군왕이 장생을 기원하기 위해 사찰 주위에 세웠던 산천을 비보(裨補)하는 장생표(長生標)에 비하면, 돌하르방은 풍수적 기능은 약함.
- 사찰 입구에 장승을 세워 경내의 청정과 존엄을 지키게 하는 불법을 수호하는 장승이나 장생(長牲)과도 거리가 있음.

■ 육지부 벽수는 18세기 이후에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화강암의 얼굴 표정과 머리 위주의 형상은 기능과 밀접함.

- 명문으로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처럼, ‘○○○장군’이라 표기하고, 흉년이나 재앙, 유행병을 가져오는 귀신이나 역신에게 겁을 주어서 쫓는 부락 수호(部落守護)의 기능이 추가 됨.
- 신의 기능은 방위가 허한 곳 각 방위에 해당하는 오방신장을 배치하여 방위를 지키고 수호하는 읍락비보(邑落裨補)도 담당함.
- 중국에서 오는 역병이나 재앙의 침입을 성문에서 제지하는 성문수호의 기능을 지님.²⁸⁾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 ‘옹중석’은 이를테면 ‘완옹중(阮翁仲)대장군’이라 하는 명문은 없지만, 장군의 모습을 담으려 했고, 실제로 닮아있음.

- 곧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성문벽수’와 같은 기능을 했으며, 성문 수호와 더불어 역병이나 재앙을 물리쳐서 성문 안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마을벽수와 같은 기능도 담당했음.
- 정의성이나 대정성에 세워진 각 12기씩의 돌하르방도 마찬가지로 지역민 수호라는 마을벽수의 기능을 온전히 담당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28]
돌문화공원 돌하르방



[그림 II-29]
삼성혈 건신문 앞 돌하르방



[그림 II-30]
제주대 박물관 앞



■ 부안읍성 동·서문안 당산 ‘벽수’ 는 앞에서 본 바대로 숙종 15년(1689년)에 제작된 것으로 다른 벽수에 비해 제작 시기가 이른 편임.

28) 김두하 외, 2004, 『장승과 벽수』, 대원사, 49쪽.

- ‘문지기장군’이라고도 하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과 같은 ‘장군형’ 벽수임.
- 성문과 성문 안의 마을 재앙과 복을 지켜주는 수호신 한 쌍으로 작은 공원과 같은 당산에 솟대와 선돌과 함께 서 있음.
- 특히 당산의 솟대는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고 풍수적인 기능을 함.
- 정월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내고, 풍물과 줄다리기를 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단절된 상황임.

■ 전남 여수에는 수문장 및 수호신 역할을 하는 벽수가 연등동, 동산동, 봉산동 세 곳에 있음.

- 연등동 벽수는 마을벽수와 좌수영성 서문의 성문벽수적 성격이 강한데, 여수의 벽수 명문은 남정중(南正重)과 화정려(火正黎)임.
- 특히 봉산동은 과거 지명은 ‘벽수굴’로 불렸으며, 성문 앞에 벽수 2기가 세워져 있고 명문이 의미하는 바로 하늘을 맡은 천신(天神)인 남정중(南正重), 그리고 땅을 관장하는 지신(地神) 화정려(火正黎)로 대별시켜 놓음.
- 『십팔사략(十八史略)』에는 “중국 오제시대(五帝時代)에 진옥(璚瑊) 황제가 구려를 정복하고, 남정(南正)에는 중(重)에게 사천(司天)의 직책을 주어 하늘을 맡은 신(神)으로 소속시키고, 화정(火正)인 여(黎)에게는 땅을 관장하는 사지(司地)의 직책을 주었다고 함.
- 또 여수 시전동 ‘선소(船所)마을’은 조선시대의 수군이 사용하던 배나 거북선을 제작하고 수리하던 곳으로 군사적 시각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
- ‘굴강’은 포구로 배를 안쪽으로 대어서 태풍에 대비하거나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장소였음.
- ‘선소 유적’(史蹟, 제392호)지가 있는 곳에도 선소마을 벽수 두 기, 굴강 벽수 두 기가 있는데, 이들은 마을벽수로 왜적의 침입을 막고 지역민을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과 더 붙어 수호신 기능을 담당함.

[그림 II-31] 여수 연등동 남정중



[그림 II-32] 여수 연등동 화정녀



- 사찰 입구에서 호법(護法)과 경계 표시, 잡귀의 침입을 막아 경내의 부정을 없애는 사찰 지킴이 불법 신장은 창령 관룡사, 남원 실상사나, 나주 운흥사와 불회사, 상주 남장사, 의성 대곡사의 벽수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함.

- 경북 상주 남장사와 대곡사의 벽수, 창령 관룡사 벽수는 사천왕상의 모습으로 절 입구에서 사악한 기운을 막는 역할을 했고, 경계를 넘어 해탈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영역 구분을 짓는 목적이 있음.
- 이처럼 사찰벽수는 절의 입구에 서 있는 금강역사나 사천왕상처럼 신성한 공간인 부처를 모신 사찰로 들어오는 잡귀를 없애는 수호신으로, 사찰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성역을 지키는 사찰 입구로의 경계표(境界標) · 금표(禁標)의 기능 외에도 부녀자들의 기자신(祈子神)의 기능도 찾아 볼 수 있음.

[그림 II-33] 상주
남장사 벽수 하원당장군



- 남원 실상사의 ‘옹호금사축귀장군(擁護禁邪逐鬼將軍)’, ‘대장군(大將軍)’,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은 특별히 남·녀의 구분이 없고, 불법을 옹위하여 보호하고 사귀(邪鬼)를 금하여 쫓아내는 두 기능을 하는 장군이라는 점과 주나라, 당나라의 장군이라는 점을 들어 강한 힘을 지닌 장군임을 보여주도록 하고 형상화 하고 있음.
- 경남 함양 영은사지에도 좌우를 수호하는 대장군으로 각각 ‘우호대장군(右護大將軍)’, ‘좌호대장군(左護大將軍)’이 명문화 되어 있어, 사냥과 어로를 금하고 잡귀의 출입을 막는 수문장 기능을 함.

[그림 II-34] 관룡사 입구 석수



- 함양군 영은사지 ‘좌호대장군’과 ‘우호대장군’ 역시 대장군의 모습으로, 인류의 삶에 평화를 기원하는 석수들로 보임.
- 이들 사찰에 세워진 석수들은 사찰을 수호하며, 풍수지리적으로 국가의 번영과 임금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복합적인 기능과 함께 민간신앙의 기원 대상물이었음.

[그림 II-35] 우호대장군



[그림 II-36] 좌호대장군



- 이외에도 석수를 당산에 세워서 지역민 보호, 풍수비보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면서도 신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북 남원 운봉 서천리 당산의 ‘방어대장군(防禦大將軍)’,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부안 죽림리 할아버지 당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상원금귀주장군(上元禁鬼周將軍)’, 할머니 당산인 ‘하원금귀당장군(下元禁鬼唐將軍)’ 등에서도 대부분 ‘장군’ 명칭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37]

방어대장군



[그림 II-38] 남원 서천리 당산



[그림 II-39] 진서대장군



-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당산에 세워져 있는 벽수는 원래 개흥사(開興寺)에 세워져 있던 것을 옮긴 것으로, 여상의 모습인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남상인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으로 명기 되어 있음.

- 이곳은 당산제와 함께 장승제를 지내는 데, 바닷가에 있던 해창(海倉)의 조세 공물의 원만한 수송을 기원하고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함.

-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워져 마을을 수호하거나 왜적들을 물리치고, 오고 가는 길손들의 비손을 담은 마을벽수로 남원 운봉 북천리의 '동방축귀대장군(東方逐鬼大將軍)'과 '서방축귀대장군(西方逐鬼大將軍)'을 들 수 있음.

- 이외에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닥실마을), 남원시 야영면 의지리,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벽수, 순창군 남계리의 마을 지킴이 벽수들은 동편과 서편 혹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어지던 질병인 역(疫)귀신이나 왜적의 침입을 막아 마을의 평안과 안녕, 농어업의 풍요를 기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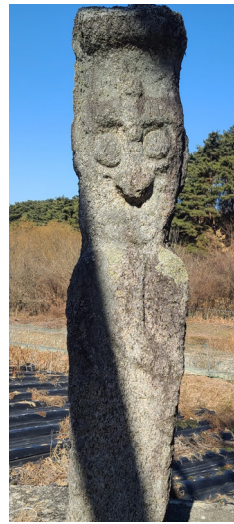
- 18세기에 오면서는 전형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상으로 바뀌는데, 민중들의 본 모습인 천진성과 함께 밝은 웃음을 그대로 간직한 삶의 건강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

- 서로 간에 화합하고 마음을 나누는 민중공동체 삶의 정서를 자화상처럼 표출함.

[그림 II-40] 유곡리
마을 벽수(우측)



[그림 II-41] 유곡리
마을 벽수(좌측)



-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육지부 벽수 기능과 비교하면 마을벽수와 성문벽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위엄과 권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의현이나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도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염원하는 수도자로서의 모습이 있음.
 - 제주에서는 사찰 수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벽수의 돌하르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 벽수의 기능상 분류 및 명문

마을벽수 (읍락비보, 마을수호, 왜적퇴치)	사찰벽수 (비보, 사찰수호, 영역경계)	성문벽수 (수문장, 수호신, 왜적퇴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벽수 (남상, 여상)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영은사지 벽수(우호대장군, 좌호대장군)	-부안읍성 동종리 동문안 벽수(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부안읍성 서문안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대정현성 돌하르방	경남 창녕군 관룡사 벽수 (남장군, 여장군)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 돌하르방(웅중석)
순창군 남계리, 총신리, 용산리 신기마을 벽수	영암군 금정군 쌍계사지벽수 (주장군, 당장군)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벽수 (진서대장군, 외1)
전북 주천면 호기리 벽수	나주 다도면 불회사 벽수 (하원당장군, 주장군)	여수 연등동 좌수영성 벽수 (남정중, 화정녀)

마을벽수 (읍락비보, 마을수호, 왜적퇴치)	사찰벽수 (비보, 사찰수호, 영역경계)	성문벽수 (수문장, 수호신, 왜적퇴치)
전남 곡성군 율천리 벽수	나주 다도면 운흥사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강진군 병영면 하고리 홍교 벽수
남원 운봉면 서천리 벽수 (방어대장군, 진서대장군)	남원 산내면 실상사 벽수(옹호금사축귀장군, 대장군, 상원주장군)	서산군 해미면 해미읍성 벽수
남원 인월면 유곡리(천하대장군), 의지리 벽수	경북 상주시 남장사 벽수 1기(하원당장군)	무안군 무안읍성 벽수(동방대장군, 서방대장군)
남원 운봉읍 북천리 벽수 (동방축귀장군, 서방축귀장군)	경북 의성군 대곡사 석장승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벽수(기습석대용)
남원 운봉읍 권포리 벽수	무안군 동탄면 법천사 석장승	광주 서원문 밖 석장승(보호동맥, 와주성선)
충무시 문화동 벽수 (토지대장군)	무안군 동탄면 총지사지 석장승	여주시 연등동 벽수 (남정중, 화정녀)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벽수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남원 만복사지 석장승	여주시봉산동(벽수골) 돌벽수(남정중, 화정녀)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벽수3기(정계대장군 동일)		
부안 죽림리 공작마을 벽수(상원금귀주장군, 하원금귀당장군)		
부안 월천리 환웅, 단군 벽수		
무안 해제면 광산리 발산마을 미륵		
대전시 대덕구 옹호동 벽수(할머니, 할아버지)		
대전시 동구 비룡동 줄굴벽수(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대전시 동구 용운동 장신 벽수		
대전시 법동 벽수		
대전시 읍내동 뒷골 벽수		
대전시 읍내동 벽수		
유성구 화암동 벽수		
대전시 동구 신상동 오리골 벽수		

마을벽수 (읍락비보, 마을수호, 왜적퇴치)	사찰벽수 (비보, 사찰수호, 영역경계)	성문벽수 (수문장, 수호신, 왜적퇴치)
통영시 문화동 벽수 기 (토지대장군)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 벽수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원항마을 벽수		
통영시 명정동 논개고개		
여수시 동산동 벽수 (남정중, 화정녀)		
여수 시전동(선소마을) 벽수(남정중, 화정녀)		
여수시 굴강 벽수		
사천면 가산리 벽수		

Ⅲ. 신앙과 문화적 배경

1. 민간 신앙적 측면

1-1 선도적 측면

- 한국 선도(仙道)에서 선인(仙人)은 환인, 환웅, 단군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표상함.
 - 신라 이후 불교 전래에 의한 선도(仙道) 수행의 전통은 미륵신앙과 습합 후, 선도계 미륵신앙이 민간 신앙화되고 마을 수호 신장이 당산의 신체로 변용해서 무속화 되기도 함.
- 전북 부안 월천리 환웅과 왕검 상(像)인 단군 벽수는 한국 선도의 잔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됨.
 - 오른쪽의 정면에는 ‘환웅(桓雄)’, 뒷면에는 ‘구룡연(九龍淵)’이라 새겨져 있고, 왼쪽 정면에는 ‘왕검(王檢)’, 뒷면에는 ‘장백산(長白山)’이라 새겨져 있음.
 - ‘환웅’, ‘왕검’이라고 새겨진 두 석상의 형태는 유사한데, 허 덕의 증조부 ‘허방한’이 꿈 속에서 선인의 지시로, 집안으로 들어와 신표로 삼아 신앙화하고 있다고 함.
 - 고대 전통 신앙인 환웅과 단군을 신앙하던 선도 사상과 거기에 내포된 ‘벽수’의 전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그림 Ⅲ-1] 부안 월천리 왕검, 환웅 벽수



- 광주 서원문 밖 동문에 세워졌다가 지금은 전남대 교정으로 옮긴 석수 두 기는 와주성선(媿柱成仙)과 보호동맥(保護東脈)이라는 특이한 명문이 있음.
- 그 의미는 여와(女媧)가 기둥(柱)이 되어 선인(仙人)으로 완성되고, 동쪽의 맥(脈)을 보호(保護)하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선도적 잔향이 남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I-2] 보호동맥



[그림 III-3] 와주성선



- 장지국²⁹⁾은 돌하르방도 제주도 형 석수로, 특히 대정현성 돌하르방 12기는 선도의 수행 자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수행문화를 손의 위치와 모양에 담긴 수인(手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석상은 작은 몸체를 지니고 고졸한 얼굴 등 대개가 비슷하며, 다른 곳에 비해 오래되어 마모가 심함.
- 특히 손이 강조되어 손가락이 섬세하게 표현되고, 눈은 둥글게 양각 테두리를 선각해서 자애로운 모습이며 친근감이 감.
- 대정성의 돌하르방은 양손을 가지런히 한 것이 2기, 왼손은 가슴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한 것이 2기, 그 외 8기는 오른쪽 손은 가슴 위로, 왼손은 아랫배에 놓여있는데, 이는 선도의 수행 중 단전호흡의 기(氣)수행으로 볼 수 있음.
- 또 육지부의 마을미륵과 많이 닮아있는데, 선도계 미륵신앙에서 민간신앙화 된 모습으로 추정됨.
- 마을미륵의 형상으로 마을과 부락민 수호, 그리고 마을 비보 풍수적인 기능을 담당함.
- 이는 원래 한국 선도가 지니는 홍익인간과 이화(理和)세계의 선도수행 문화의 원형적 모습으로 보기도 함.
- 대정성 인근 변의 수행처에서 이미 조성된 신체(神體) 또는 수행의 전범으로 존재하는 석수를 옮겨와 현 성이 축조될 당시인 태종16년(1416년) 성문석수로 삼음.³⁰⁾

29) 장지국, 2007, 「제주도 돌하르방에 나타난 한국의 선도문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국학과 국학전공.

[그림 Ⅲ-4]

대정현성 서문 돌하르방



[그림 Ⅲ-5]

대정현성 남문 돌하르방



[그림 Ⅲ-6]

대정현성 동문 돌하르방



- 특히 육지부 마을벽수나 대정성 돌하르방의 손 모양은 부처나 미륵의 수인(手印)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미륵 형태의 벽수들은 선도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반영시키고 있음.
 - 기능 면에서도 땅을 비보(裨補)하고, 지역민 수호적인 직능과 선도 수행자로서의 법수 고유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인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앞에서 본 전남 곡성군 오산면 벽수(남상, 여상), 순창군 남계리, 충신리 벽수 등의 마을벽수와 더불어, 제주도의 대정성, 정의성 돌하르방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음.
 - 돌하르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손 모양의 수인은 복신미륵(福神彌勒)인 제주 동쪽 만수사(萬壽寺)의 동자복(東資福)과 서쪽 해륜사(海輪寺)의 서자복(西資福)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 돌하르방이 육지부 벽수에 비해 손이 강조되는 것은 동·서 미륵의 형상도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³¹⁾ (※사진 -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그림 Ⅲ-7] 동자복



[그림 Ⅲ-8] 서자복



30) 정성권, 2015, 「제주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제 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1) 이두재, 1991, 『태양을 안은 장승』, 삶과 꿈. 206쪽-222쪽.

-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정의성, 그리고 대정성의 제작 시기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장지국은 선도의 영향을 받은 육지부 미륵벽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정성 돌하르방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고, 성이 완공된 이후 남은 몇 기를 더 제작해서 조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함.
 - 정성권은 제주에서 전해지던 ‘돌하르방 전설’과 진주대아고등학교에 남아있는 몽고풍의 병거지 석상의 사례를 들어 대정현성에 있는 4기의 돌하르방이 몽골 시기에 제작됨을 주장했으며, 특히 이들은 대정성 조성 이전부터 존재해있었고, 성 조성 이후 남은 몇 기를 더 만들어서 성문 수문장의 기능과 지역민 수호를 위해 조성했다고 주장함.
- 이처럼 돌하르방에도 수행자로서의 수인(手印)이 구비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육지부 마을의 선도계 미륵 석상처럼 선도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

1-2 무속적 측면

- 육지부 당산에 있는 벽수가 ‘신체’로 인정되고, 이를 비롯한 신앙물에 대한 의례를 통해서 무속적인 관념이나 사고가 반영됨.
- 돌하르방은 성을 지키는 수문장의 기능, 방액(防厄)과 방두신(防痘神) 역할의 수호신 기능, 자식을 기원하고 아들을 바라는 주술적인 기자(祈子)요소가 있어서 육지부 벽수와 같은 기능을 함.
 - 제주의 돌하르방에는 육지부 ‘성문벽수’나 ‘마을벽수’가 지니는 민간신앙적인 관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돌하르방이 무속의 영향을 덜 받아 제를 받거나 당에 모셔지지 않는 것은, 기존 남성 중심의 마을포제(酬祭)나 여성 중심의 당제(堂祭), 무속의례인 ‘마누라배송’ 등의 제를 통해 따로 해결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무안, 부안, 장흥, 강진 병영성 등의 성문벽수가 당산이나 마을로 이전되면서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무속 사상과 습합되어 당산의 민속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벽수가 신앙적인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 편임.
 - 자연물에 대한 소박한 신앙과 정서가 마을 신앙을 바탕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민중의 자화상으로 양식화한 수호신 상(像)을 만들어 생활에 직접 기원의 대상으로 삼음.
 - 각종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업의 형태인, 두레, 품앗이, 풍요, 다산, 액막이, 수호신

이 필요하여, 민중 생활공동체의 이상을 신앙예술로 풀어헤친 결과물로 인식되기에 이들 형태에서 원시적 삶의 건강성이 잘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음.

■ 부안 서문안 당산을 예로 보면 당산나무, 솟대 혹은 짐대와 당간과 함께 남녀 벽수가 세워져 있음.

- 짐대는 불씨나 사악한 씨앗을 쪼아먹는다고 하는 의미로 오리나 새, 기러기 형상을 올리고, 마을 배 모양의 행주형 지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우거나 과거 급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기도 함.
-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날 공동체 제의인 당제와 동제 혹은 별신제를 지내고 벽수에게도 장승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함.
- 평상시 낱자와 시간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마을에 세워져 있는 벽수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의례를 지냄으로써, 한 해의 안녕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음.

■ 부안 서문 안 벽수의 경우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격년제로 2년마다 정월 대보름날에 행해져 왔으며, 현재는 행정의 무관심으로 중단된 형태임.

- 남녀가 각각 편을 나누어 먼저 새끼를 꼬아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함.
- 당산의 선돌에 새끼줄을 돌려 감는데, 이를 석상에 '옷 입히기'라고 하며 제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제를 지냄.
- 부정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줄을 치고 향토를 바름.
- 제물은 주로 돼지머리를 비롯해 흰 시루떡, 채소, 과일 등으로 준비함.
- 특별히 당산 할머니나 당산 할아버지에게 제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 벽수들이 당산에 매인 하위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임.
- 현재는 별도의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밤에는 야광 조명을 설치해서 인근 공원 조성으로 명소가 되고 있음.

■ 남원 서천리 당산은 당산나무, 솟대, '진서(鎭西)대장군', '방어(防禦)대장군'의 2기의 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수는 사악한 것과 외세 침입, 역병 등에서 지역민을 수호하는 기능을 함.

- 진서대장군은 풍수지리에 바탕을 두어 마을의 허한 곳인 서쪽을 막아준다는 비보(裨補) 의미, 혹은 서쪽 곧 중국에서 들어오는 역병과 같은 사악한 기운을 누른다고 하는 진서(鎭西)의 의미로 이해함.
-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당산제를 행해오다가 1980년 이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함.

- 통영군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의 벽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재앙과 역병을 막아주는 '신격'임.
- 마을 사람들은 할배, 할매 벽시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재앙과 고통에서 면할 수 있다고 믿음.

[그림 III-9]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벽수



[그림 III-10]

통영시 삼덕리 당포마을 제당



- 경남 사천군 가산리 벽수는 조선시대 경상남도 서부지역 7개 군현의 공물(貢物)을 가산창(駕山倉)에 모아서 해로를 통하여 중앙으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조당(租堂)에 현감들이 모여 공물이 중앙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기 위해 세움.
-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목적인 조창(漕倉)과 해운(海運)과 역병(疫病) 수호를 위한 것이 그 특징임.
- 제사는 동제 성격으로, 1년에 한 번 음력 1월 1일 새벽 1시에 지내며, 제관은 동민이 윤번제로 맡게 하나 흉(凶)이나 상(喪)을 당한 자는 제관에서 제외함.
- 제물은 돼지머리·고사리·콩나물·단술 등이며, 제사가 끝난 뒤 돼지머리는 땅에 묻고 제사 하루 뒤 오광대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임.
- 제사의 비용은 동네 계에서 공동으로 조달함.

[그림 III-11]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제당과 여벽수



[그림 III-12]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제당과 남벽수



2. 불교적 측면

- 사찰벽수는 사찰 외곽에 위치하여 사찰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적 역할과 함께,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귀·잡신을 막아주는 사천왕상과 같은 수문장 기능을 담당함.
 - 특히 신라말에서 고려 초기에는 국가의 비보사찰이던 영암 도갑사 인근 변의 ‘황장생’, ‘국장생’, 통도사의 손내천이나 상천리의 국장생 표지석은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곳을 막아 산천을 비보하고, 국가의 안정과 임금의 수명장수를 기원했던 것으로 나타남.
- 불교와 전통신앙의 융합양상을 보이는 사찰벽수는 사찰의 경계표(境界標)·금표(禁標), 불법의 수호신장, 국가와 사찰의 보허진압(補虛鎮壓), 잡귀·잡신의 출입을 막는 수문장, 부녀자들의 기자신(祈子神)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전승물이었음.
 - 곧 사찰벽수는 불법과 사찰을 수호하며, 풍수지리적인 면과 함께 국가의 번영과 임금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기능과 더불어 민간신앙의 복합 기원 대상물이었음.
- 경북 상주시 남장사나 경북 의성 대곡사의 벽수는 절 입구에 사천왕상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서 사찰 외곽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절에 들어오는 이들의 재액과 잡귀 잡신을 물리치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과 절의 경계를 표시함.
 - 사찰의 경계, 사찰 경내에서의 살생을 금하는 사냥이나 어로의 금지, 호법(護法)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움.
 - 전남 무안군 법천사 벽수는 신체 밑에 돌멩이를 쌓아 올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동네 부인들이 아들을 얻으려고 재물을 차리고 가서 고사를 지내며 기원하고 돌가루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고, 부인의 배를 벽수 배에다 맞추어서 튼튼한 아들 낳기를 빌었다는 것은 무속과 불교가 어우러진 신앙 석상임을 보여줌.

[그림 III-13]

전남 무안군 법천사 석수(우)



[그림 III-14]

전남 무안군 법천사 석수(좌)



- 절터 사지(寺址)인 영암 쌍계사지나, 함양 영은사지, 무안 총지사지, 남원 만복사지 등의 석수들은 묵묵히 과거의 화려했던 불사(佛寺)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
- 절에 있던 석수들을 당산으로 옮겨와 마을석수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남원 인월면 유곡리 석수는 원래 절이 폐사되면서, 절에 있었던 석수를 마을로 이동해 세움으로써 마을의 수호신앙으로 자리매김.
 -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석수는 원래는 '개흥사' 사찰 입구에 세워졌던 것을 당산으로 옮겨서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함.
- 조성 시기가 거의 확실한 나주 다도면 불회사 석수, 운흥사 석수는 기존 사찰석수와는 달리 자신들이 자화상인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얼굴을 표시하고 석수의 기능을 뜻하는 명문을 삽입함으로써 재액과 잡귀를 막는 수문장 역할로 삼았는데, 이는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민중들의 자의식 발로로 마을석수의 기능을 적극 수용하기도 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림 Ⅲ-15]

경북 의성 대곡사 입구 벽수(우)



[그림 Ⅲ-16]

경북 의성 대곡사 입구 벽수(좌)



IV. 벽수의 문화사적 가치

1. 조형예술의 넘는 공동체의 생명력

-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 삶, 노동과 예술의 미분화 상태에서 그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채 공동의 가치인 생명의 힘, 영혼의 신비성 등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음.³²⁾
- 장승은 1988년 통계³³⁾에 의하면 전국 석장승은 79개소, 목장승은 90개소로 전국에 분포함.
 - 석장승은 전라남북도, 경남, 충남에 주로 분포됨.
 - 『장승탐구』³⁴⁾에서는 육지부의 석장승의 수가 모두 220기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있음.
- 유흥준은 제주도 돌하르방은 간결한 형태 요약을 통한 단순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 특유의 무덤가 석인상과 함께 공동체의 이미지로 전환해서, 전형적인 수호신 상을 만들어 내었다고 함.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태권도 형의 손과 배불뚝이 몸체, 왕방울 눈이 그 특징으로 부각됨을 강조함.
 - 대정성 돌하르방은 해학적이면서 맑은 인상을 준다고 함.
- 이종철은 벽수의 형태가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봄.
 - 순박한 토속미, 마음을 비운 제작 태도, 멋 부리지 않는 단순성, 사상과 상징의 은근한 반영, 자연주의적 감성, 양식화의 거부, 과감한 생략, 추상적인 신비의 표현이 이루어짐.
 - 제작에는 정해진 교본이나 수치 없이 눈썰미로 이루어지게 되며 마을 원로들의 일정 부분의 간섭도 있었음.

32) 유흥준·이태호, 1988, 『장승』, 열화당, 158쪽-169쪽.

33) 이종철, 1988, 『장승기행』, 『장승』, 열화당, 139쪽.

34) 김동관, 2023, 『장승탐구』, 아루나, 111쪽

- 벽수는 익살, 괴기, 해학, 냉소, 천진, 인자, 명칭, 순종의 용어로 표출됨.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강직, 온유, 명칭, 덕성, 허탈, 불굴의 기상, 수호신, 장수(將帥), 무사(武士) 신상(神像)의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함.

[그림 IV-1] 성읍 돌하르방(홍정표)



[그림 IV-2] 성읍 남문 돌하르방(홍정표)



- 이우재는 세련미 부족으로 오는 돌장승의 표정이 도리어 친근하고 우습고, 미완의 모습으로 정직성을 가져온다고 봄.
 - 파격에서 오는 정신적 울림, 미적 감동을 받는 것은 의외이고, 미완으로 남아 영성한 데서 현대인이 목말라하는 정직성이 있음.
 - 정직성은 자연과 함께 충분한 교분이 있었음.
 - 석장승의 미는 근사함, 세련미가 아닌, 이를 깨뜨리는 파격미에 있다고 봄.

2. 신, 사람, 자연과 공존

- 과거 사람들과의 공존으로 소망하는 바, 기원을 들어주고, 주로 농업의 풍년과 어업의 풍어를 가져다주며, 악귀퇴치의 신통력을 지닌 자연 속에서 신성성이 되살아난 돌문화.
 - 이우재는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신의 형상으로 태어나 신인화(神人化)된 민신(民神)의 표상으로 봄.
 - 자연,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민중 집단의 한과 고뇌, 성원이 담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인(仙人) 벽수(法首)는 구도자(求道者), 봉사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음.

[그림 Ⅳ-3] 권포리 방사탑과 벽수



[그림 Ⅳ-4] 권포리 벽수



3. 수용을 통한 창조적인 미의식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눈, 주먹코, 병거지, 수인(손)이 있으며, 이전 만들어진 만수사와 해륜사의 복신미륵이 주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을민의 안전을 바라는 벽수의 기능을 수용함.
 -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부안, 무안, 장흥, 해미읍성, 병영성, 여수 전라좌수영의 성문벽수와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함.
 - 또 절에 세워져 불사를 수호하고 해탈 영역을 표시하며 불법을 수호하던 권위적인 사찰 장승 기능이나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편으로 남원 실상사 벽수의 이미지 와도 상통함.

V. 보전 방안 및 여건 분석

1. 보전에 관한 방안 및 계획

-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지속 보전을 위한 공동 방안 모색
 -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로 신의 형상을 제작하고 공경해 온 벽수 신앙과 관련된 유산의 지속 보전.
 -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벽수'에 대한 체계적인 현실태 조사
 - 제작자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지방 혹은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읍성 돌하르방 국가 민속문화유산 지정.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벽수의 유산적 가치 발굴.
- 돌하르방과 벽수의 문화 공동체 복원과 관리체계 마련
 - 벽수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과 전통신앙 의례의 지속 보전.
 - 평화와 안녕의 상징인 “백아강 법수교를 오고 가던 ‘법수신선’에 대한 벽수 축제 마련.
- 현존하는 벽수 중 유산적 가치가 높고, 지속 보전이 가능한 지역별 자료 선정.
 - 전문가 현장 및 지역민 면담을 통해 보전 의지 확인.
 - 무분별한 제작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기존 유산의 가치 훼손 유발의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고려할 사항임.
-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은 지역민들의 유물 제작, 활용, 의례의 진행 등 주민 의식 반영과 더불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법안 및 민속 문화유산 지정

2-1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역사, 문화, 생활 속에서 돌로 형성된 유형의 유산과 이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어 전승되어 온 기술, 의례 등 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승자”란 돌문화를 전통방식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돌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보호·관리
3. 제주 돌문화 유네스코(UNESCO) 등재
4. 돌문화 세계화 및 홍보
5. 돌문화 전승자 지원

6. 그 밖에 돌문화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돌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2. 그 밖에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돌문화의 조사 및 연구와 돌담 쌓기 기술의 전수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도지사는 돌문화의 전승을 위해 돌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돌문화 보존, 전승,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문화 관련 조사·연구 사업

2. 돌문화 관련 교육 사업

3. 돌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4. 돌문화 전승자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문화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류) 도지사는 돌문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 12. 30)

2-2 지방 민속 문화유산

■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제도에 의해 시·도가 지정하는 문화재 중의 하나임.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
- 문화다양성 강조, 도민의 역사적 정체성,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

〈표 V-1〉 지방 민속문화유산 지정 목록

지방 명	유산 명
제주특별자치도	- 돌하르방(1971) - 정의현성 12기 - 대정현성 12기 - 제주목 돌하르방 21기
전라남도	- 총지사지 석장승(1987) - 법천사 석장승(1987) - 무안 성남리 석장승(1987) - 보성군 해평리 석장승 - 영광 도동리 석장승 - 신안 도초 고란리 석장승
광주광역시	- 광주 서원문 밖 석장승
대전광역시	- 법동 석장승
대구광역시	- 신당동 석장승
전북특별자치도	- 남원 주천리 석장승 - 죽림리 석장승 - 율천리 석장승
경상남도	- 사천 가산리 석장승 - 창령 관룡사 석장승 - 함양 영은사지 석장승
충청북도	- 음성 마송리 석장승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산 석장승 - 화천 석장승 - 성불사지 석장승
기타	- 통도사 상천리 국장생 석표 - 장성 완덕리 미륵석불

■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된 제주읍성 돌하르방 2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관할 권 내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 민속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 민속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벽수 중 전문가 혹은 지방의 유산위원회 추천으로 국가유산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 민속 문화유산

- 국가 민속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에서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정함.

〈표 V-2〉 국가 민속문화 유산 지정 목록

명 칭	지정 연도
통영시 문화동 벽수	1968
나주 불회사 및 운흥사 석장승	1968
남원 실상사 석장승	1969
부안 서문안 당산 및 동문안 당산 석장승	1970
남원 서천리 당산 석장승	1970
여수 연등동 벽수	1990
순창 남계리 석장승	1979
순창 충신리 석장승	1979
장흥 방촌리 석장승	2013

- 국가 민속 문화유산의 명칭 사용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벽수, 석장승, 당산이 사용되고 있어 용어 정립이 요구됨.
 - 석장승 명칭을 ‘벽수’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보임.
 - 당산은 기원 대상물인 신체로서의 벽수나 석장승을 포함하고 솟대(집대, 오리) 당산목, 선돌 등 부속 유물이 포함되고 있음.
 - 2013년 장흥 방촌리 석장승 국가 민속 문화유산 지정 이외에, 그 후 지정 건이 없는 실정임.

2-4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함.
 -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여야 함.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년 채택,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함.

■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

- i, ii, iii, vi에 해당함.

-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신할 것.
-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 v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 vi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표 V-3〉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목록수	목록 명	지정 연도
3	- 해인사장경판전, - 석굴암과 불국사, - 종묘	1995
2	- 창덕궁, - 수원화성	1997
2	-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0
1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1	- 조선왕릉	2009
2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1	- 남한산성	2014
1	- 백제 역사 유적 지구	2015
1	- 한국의 산지승원	2018
1	- 한국의 서원	2019
1	- 울산반구대 암각화	2025

VI.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비교연구를 통해 돌하르방의 위상 및 문화사적 가치를 파악하고 육지부 벽수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임.
 - 특히 육지부 벽수와 제주 돌하르방 제작 시기와 형상적 특성,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함.
 - 한국의 벽수는 전통의 고유 사상인 선도(仙道)의 법수(法首)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후대 불교와 무속에 습합되어 변용되고 있음이 나타남.
 - 본고는 신라 이후 선도수행과 악을 퇴치하는 전통에 의해 조성된 벽수가 민간 신앙화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돌문화를 정리하고, 제주 돌하르방의 위상도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지속적인 보전 방안으로 국가나 지방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과 함께, 석수장의 벽수 제작 과정 등을 무형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 혹은 지방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차후 '한국의 벽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모색함.
- 돌하르방은 육지부 '벽수'와 친연성이 있으며, 성문에 세워져 성문 안 지역민을 지키는 수문장(守門將)이며 수호신(守護神) 기능을 담당함.
 - 특히 벽수, 곧 법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간신앙으로 선도(仙道) 사상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애환과 염원을 반영하여 돌이나 나무에 신의 형상을 제작, 이를 신앙화 하여 자신들의 소망을 기원하여 왔던 대표적인 전통 돌문화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 제작 시기는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년)과,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954년)의 기록을 보면 목사 김몽규(金夢堧)의 지시로 영조 30년(1754년) 중국 진나라의 장수 '완옹중(阮翁仲)'의 본을 딴 웅중석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이 시기는 숙종과 영조 대 역병(천연두)이 제주 전도에 만연하던 시기로, 역병 퇴치를 위한 육지부 벽수 제작이 유행되던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맞물리고 있는 점으로 보

아, 제주읍성 돌하르방도 ‘역병퇴치’라는 목적하에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형상적 측면에서 인면형이며, 무사(武士) 형상을 함.
 - 육지부 귀면형 벽수가 지닌 허라든가, 수염,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사악한 괴질이나 역병을 가져오는 잡귀신을 물어뜯는 무기가 되는 것에 반해, 돌하르방은 병거지형 모자, 큰 눈방울, 주먹코, 튀어나온 얼굴 형상이 있는 인면형이며, 큰 팔과 큰 손은 잡귀들을 누를 수 있는 압권의 형상임.
- 돌하르방은 손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 반해, 육지부 벽수는 몸통만으로 제작되고 대부분 손이 생략되고 있음.
 - 육지부 벽수가 손이 있는 것은 수인이 있는 마을 미륵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이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북 남원 주천면 호기리 벽수는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고, 악을 물리치는 방상씨 가면의 모습임.
 - 순창군 남계리 벽수는 미륵형으로 두 손이 모아져 있는 모습으로 대정현의 돌하르방과 유사한데, 이마에 백호가 있는 것이 특징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완옹중 장군의 명칭을 붙인 ‘옹중석’으로, 육지부에 있는 장군형 벽수들이 지닌 기능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단지 성문 수호인 수문장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이나 지역민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잡귀를 물리치거나 천연두(痘神)와 같은 병마(病魔)를 물리치는 제액(除厄) 소멸의 기능이 컸다고 할 수 있음.
 - 곧 육지부의 성문 수호와 진입 금지, 잡귀나 질병의 침입을 막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마을벽수, 성문벽수의 기능과 상통함.
-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장군형으로 위엄과 권위가 있으며, 정의현이나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인면형이면서 수인이 있는 미륵형으로 도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염원하는 수도자로서의 모습이 있음.
- 육지부 마을벽수나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손 모양은 부처나 미륵의 수인(手印)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데, 선도(仙道) 문화적인 요소가 잘 반영되고 있음.
 - 미륵 형태의 벽수들은 풍수적으로 마을의 땅을 비보(裨補)하고, 지역민 수호적인 직능과 선도 수행자로서의 법수 고유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고 있음.

- 제주읍성 돌하르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손은 복신미륵(福神彌勒)인 제주 동쪽 만수사(萬壽寺)의 동자복(東資福)이나 서쪽 해륜사(海輪寺)의 서자복(西資福)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동·서 미륵의 형상을 수용해 이를 반영했다고 보고 있음.
- 돌하르방은 육지부 ‘성문벽수’나 ‘마을벽수’가 지니는, 무속이나 불교적인 민간신앙으로서의 관념은 거의 없고, 육지부의 ‘장승제’와 같은 제의도 없음.
 - 이처럼 돌하르방이 제를 지내거나 당에 모시지 않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존 남성 중심의 마을포제(酬祭)나 여성 중심의 당제(堂祭), 역병을 치료하는 무속의례인 ‘마누라배송’을 통해 따로 해결한 것으로 보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벽수의 문화적 특징은 조형예술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에서 나온 생명력과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존, 다른 작품의 수용을 통한 창조적 미의식이 배어 있음.
- 돌하르방과 육지부 벽수의 지속 보전을 위한 공동 방안 모색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가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로 신의 형상을 제작하고 공경해 온 원시 신앙의 신체인 벽수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지속 보전.
 - 한국의 전통 민간신앙을 대표하는 ‘벽수’에 대한 체계적인 현 실태의 조사.
 - 제작자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지방 혹은 국가 무형 문화유산 지정.
- 돌하르방과 벽수문화 공동체 복원과 관리체계 마련
 - 벽수 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과 전통 신앙 의례의 지속 보전.
- 현존하는 벽수 중 유산적 가치가 높고, 지속 보전이 가능한 지역별 자료 선정.
 -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및 지역민 면담을 통해 보전 의지 확인.
 - 무분별한 제작의 난립은 기존 유산의 가치 훼손 유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고려되어야 함.
-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판단, 지역민들의 유물 제작, 활용, 의례의 진행 등 현재 지역민의 의식을 반영함.
- 국가 민속 문화유산의 명칭 사용에 있어 지역별로 벽수, 석장승, 당산이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용어 정립이 요구됨.

- 석장승 명칭을 ‘벽수’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고 봄.

■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된 제주읍성 돌하르방 2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관할권 내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벽수 중 전문가 혹은 지방의 추천으로 국가유산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함.

-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보유하여야 함.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1972년 채택,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함.

- 한국의 벽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에 합당함.

■ ‘한국벽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랜 세월 민중들과 함께 마을이나 절, 그리고 성문 지킴이로 세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악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염원이나 소망을 들어주던 벽수는 한국인의 전통 민간신앙을 대표함.

- 현재도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나무로 만든 목벽수 우성목(偶成木)은 마을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연물에 대한 숭앙과 공경, 공동체의 의례가 행해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임.

- 조각이라는 미술학적인 면에서도 예술가의 자유스러운 성정에서 빚어진 ‘파격미’와 더불어, 일반 민의 정성이 축적된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재되고 있음.

- 17세기에서 18세기 조선조 숙종, 영조 당시에 만연하던 전염병인 천연두라는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석상들은 인면, 귀면, 미륵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자연 속에서 민신(民神)이 되어 있으나, 300년이나 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석상들은 마모되고, 그 형태도 손상되어 시급한 보존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종교 철학적인 면에서 불교 전래 이전의 민족 초기 종교였던 ‘법수신앙’과 맥이 닿아있고, 특히 자연물 중 돌이나 나무 등을 신앙하던 원시 종교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음.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돌하르방과 석장승이 지닌 ‘돌’로 된 벽수 중심의 고찰이므로 나무로 된 목벽수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레 논외로 하게 됨.
 - 현재 목벽수의 수가 더 많고, 마을 공동체가 벽수 제작으로 협업하고 마을제와 함께 장승제를 치르는 등 공동 의례가 살아 있어서, 차후 의례 시기에 맞춰 조사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대정, 정의현성 돌하르방인 경우, 그 크기나 모양이 다르고 지닌 특성이 제각기 달라 그 제작 시기나 목적, 그리고 기능적 역할이 다른데, 이를 엄밀히 구분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선도 수행자로서의 손동작 요소가 강한 대정성 돌하르방과 정의성 돌하르방에 대한 논의, 또는 기타의 돌 관련 전설 등에 대한 조사와 육지부 벽수에 대한 구비전승 조사 연구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고문헌

- 『한서(漢書)』(권27)
『진서(晉書)』(권27)
『한서(漢書)』(권27)
『십팔사략(十八史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맥(李陌), 『태백일사(太白逸史)』
이익(李穡), 『성호사설(星湖僊說)』
김석익(金錫翼), 1918, 『탐라기년(耽羅紀年)』
담수계(淡水契), 1954,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일반 문헌

- 가중수 외, 2011, 『한국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코리아.
국립광주박물관, 1985, 『벽수신앙 현지조사』.
국립민속박물관, 1988, 『강원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경기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경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충청남도, 1991,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전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4, 『충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남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7, 『경남지방 장승·숫대신앙』(부록: 제주의 석상).
국립제주대학교, 2002, 『제주 사람들의 삶 : 만능 홍정표 사진집』, 일원피엔씨.
경기학연구센터, 2015, 『경기도 장승문화』, 민속원.
김동관, 2023, 『장승탐구』, 아루나.
김두하, 1980, “로표장승 고찰”, 『한국민속학』제12집, 한국민속학회.
김두하, 1981, “두창 장승고”, 『한국민속학』제14집, 한국민속학회.
김두하, 1995, 『벽수와 장승』, 집문당.
김두하 외, 2004, 『장승과 벽수』, 대원사.

- 김병모, 2006,『김병모의 고고학 기행』, 고래실.
- 김석익 편, 2017 『탐라기년(耽羅記年)』, 제주문화원,
- 김영돈, 1968, “제주도의 석상, 석구”,『민속자료조사보고서』제50호, 문화재관리국.
- 김영돈, 1973, “제주·대정·정의 주 현성 석상”,『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영돈,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경신인쇄사.
- 김유정, 2007, 「돌하르방 북·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耽羅文化』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익중, 2005, 『濟州 돌하르방 : 김익중 사진집, 제6집』, 애향.
- 김정선, 2008, 「웅충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탐라문화』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담수계(淡水契) 편, 1954,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 명승고적조, 제주문화원.
- 박정근 외, 2000,『돌의 미학을 찾아서』, 다른 세상.
- 유홍준·이태호, 1988,『장승』, 열화당.
- 이두재, 1991,『태양을 안은 장승』, 삶과 꿈.
- 이명덕 외, 1976,『한국의 장승』, 미술문고.
- 이맥,『태백일사』, 임승국 번역·주해,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 이종철, 1982, “장승신앙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임동권, 1968, “나주 불회사, 운흥사, 창령 관룡사 장승”, 제7호, 문화재관리국.
- 장주근, 1968, “도갑사의 석장승”,『민속자료조사보고서』제7호, 문화재관리국.
- 장주근, 1968, “충무시 문화동 벽수”,『민속자료조사보고서』제15호, 문화재관리국.
- 장주근, 1975, “장승과 솟대”,『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20, 을유문화사.
- 장지국, 2007,「제주도 돌하르방에 나타난 한국의 선도문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국학과 국학전공.
- 정상원, 2000,『장승』(사진집), 눈빛.
- 정성권, 2015, 「제주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탐라문화』제 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존플레리·폴반 지음(유정화 옮김), 2005,『이스터 섬의 수수께끼』, 아침이슬.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2』, 각출판사.
- 최남선, 2013,『심춘순례』, 경인문화사.
- 황시권, 2015, 『제주도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시권, 2019,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 고찰」,『탐라문화』제 6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황시권, 2022,「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탐라문화』 제6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ABSTRACT

A Comparative Folkloric Study of Jeju Dolhareubang and Stone Jangseung (Beoksu)

Choa Hye Kyung

-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tatus and cultural-historical value of the Jeju Dolhareubang(돌하르방)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inland Beoksu(벽수), and to explore joint measures for their continued preservation.
- According to records in Tamna Ginyeon(耽羅紀年)(1918) by Kim Seok-ik (金錫翼) and Jeungbo Tamnaji(增補耽羅誌)(1954) published by Damsugye (淡水契), the Dolhareubang of Jeju Eupseong were produced in the 3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1754) under the directive of Governor Kim Mong-gyu (金夢燐). They were modeled on General Wan Ong-jung of the Qin dynasty in China, hence the name Ongjungseok(翁仲石, 'Ongjung Stone').
 - This period coincides with the 17th to 18th centuries, when epidemics (such as smallpox) were widespread during the reigns of Kings Sukjong and Yeongjo, and the production of mainland Beoksu as plague-preventive guardians was common. Thus, the Jeju Eupseong Dolhareubang are presumed to have been urgently and inevitably created for the same purpose: warding off epidemics.
- The Jeju Eupseong Dolhareubang are anthropomorphic in form and take the shape of warriors.
 - Among the functions of mainland Beoksu were guarding fortress gates, prohibiting entry, and preventing the intrusion of evil spirits or disease. In this sense, their role overlaps with that of village Beoksu and gate Beoksu.
- Unlike the Dolhareubang, which have sculpted hands, most mainland Beoksu are carved only as torsos, with hands omitted.

- The hand gestures of village Beoksu and Dolhareubang carry symbolic meaning, similar to Buddhist or Maitreya mudrās, reflecting Daoist cultural elements.
 - Mainland Beoksu in the form of Maitreya also have a geomantic (pungsu) role of protecting the village land, embodying both the guardian spirit of the community and the image of a Daoist practitioner.

- The common hand forms of Jeju Eupseong Dolhareubang also appear in the images of the Dongjabok(東資福, Eastern Fortune Deity) at Mansusa(萬壽寺) temple in the east of Jeju, and the Seojabok(西資福, Western Fortune Deity) at Haeryunsa(海輪寺) temple in the west. This suggests that the Dolhareubang absorbed the imagery of the East and West Maitreya figures.

- The Jeju Eupseong Dolhareubang, named Ongjungseok after General Wan Ong-jung, share almost identical functions with mainland general-shaped Beoksu. These roles extended beyond gatekeeping to that of protective deities safeguarding villages and local people, repelling evil spirits, driving away disease demons such as the smallpox god (Dosin 痘神), and dispelling misfortune.

- Unlike mainland gate or village Beoksu, which are tied to shamanistic or Buddhist folk beliefs, the Dolhareubang of Jeju are largely free of such ritualistic concepts, and Jeju has no equivalent of the ‘Jangseungje’ ritual found on the mainland.

- Joint Preservation Measures for Dolhareubang and Mainland Beoksu
 - As primal religious symbols created by local communities in the form of wood or stone, Beoksu and their related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tinuously preserved.
 - A systematic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Beoksu, which represent Korean traditional folk beliefs, is required.
 - Designation of master carvers and related skills as local 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ursued.

- Restoration of the Dolhareubang-Beoksu Cultural Community
 -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communal system surrounding Beoksu culture, thereby reviving village solidarity and sustaining traditional ritual practices.

- Regionally significant Beoksu with high heritage value should be selected for preservation.
 - Expert fieldwork and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should assess the will to preserve.
 - Uncontrolled production and proliferation risk damaging the value of existing heritage and must be carefully managed.

- The assessment of value as a living cultural heritage reflects the current consciousness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their practices of artifact production, utilization, and ritual performance.

- Clarification of nomenclature is needed in naming national folk heritage as terms such as Beoksu, Stone Jangseung, and Dangsan are used regionally.
 - The term Beoksu should be adopted in place of Stone Jangseung.

- Certain Beoksu designated as local folk heritage merit promotion to national heritage through expert or local recommendation.

- World Heritage designation applies to tangible heritage possess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This is based o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1972).
 - Korea’s Beoksu meet the criteria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heritage list.

-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Eupseong Dolhareubang and Beoksu extend beyond sculptural art: they embody the vitality of communal faith, the coexistence of nature, gods, and humans, and a creative aesthetic achieved through the absorption of diverse artistic influences.

부록

1. 벽수의 크기

※ 몸체의 크기에 대한 자료는 제주도 돌하르방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의『경남지방의 장승 · 솟대』에서, 육지부 벽수의 경우 이재두의『태양을 안은 장승』에서 제각기 발채 인용함

지역	벽수 명	크기(높이, 너비, 폭)
제주특별 자치도	정의성 돌하르방 (동문)	1. 높이 121.5cm, 너비 52cm, 폭 32cm 2. 높이 124.5cm, 너비 54.5cm, 폭 48cm 3. 높이 159.5cm, 너비 57cm, 폭 39cm 4. 높이 133cm, 너비 49cm, 폭 32.5cm
	정의성 돌하르방 (남문)	1. 높이 149cm, 너비 58.5cm, 폭 48cm 2. 높이 179.5cm, 너비 66.5cm, 폭 55cm 3. 높이 159.5cm, 너비 58cm, 폭 48cm 4. 높이 156cm, 너비 61cm, 폭 48.5cm
	정의성 돌하르방 (서문)	1. 높이 120cm, 너비 47cm, 폭 43.5cm 2. 높이 134cm, 너비 45cm, 폭 38cm 3. 높이 135cm, 너비 49.5cm, 폭 44.5cm 4. 높이 151.5cm, 너비 51.5cm, 폭 32.5cm
	대정성 돌하르방 (동문)	1. 높이 105cm, 너비 53cm, 폭 34cm, 둘레 153cm(동쪽 우) 2. 높이 123cm, 너비 54cm, 폭 36cm, 둘레 170cm(동쪽 좌) 3. 높이 123cm, 너비 48cm, 폭 34cm, 둘레 153cm(서쪽 좌) 4. 높이 115cm, 너비 66cm, 폭 48cm, 둘레 186cm(서쪽 우)
	대정성 돌하르방 (남문)	1. 높이 145cm, 너비 66cm, 폭 46cm, 둘레 200cm(웃) 2. 높이 142cm, 너비 68cm, 폭 42cm, 둘레 191cm(맨 좌측) 3. 높이 123cm, 너비 48cm, 폭 34cm, 둘레 153cm(가운데) 4. 높이 142cm, 너비 62cm, 폭 46cm, 둘레 188cm(목걸이)
	대정성 돌하르방 (서문)	1. 높이 126cm, 너비 56cm, 폭 27cm, 둘레 162cm(서쪽 좌) 2. 높이 136cm, 너비 51cm, 폭 33cm, 둘레 147cm(서쪽 우) 3. 높이 103cm, 너비 48cm, 폭 37cm, 둘레 160cm (동쪽 우) 4. 높이 120cm, 너비 52cm, 폭 33cm, 둘레 153cm(동쪽 좌)
	제주목 돌하르방 (관덕정)	1. 높이 216cm, 너비 59cm, 폭 39cm, 둘레 157cm(좌) 2. 높이 213cm, 너비 57cm, 폭 36cm, 둘레 163cm(우)
	제주목 돌하르방 (목관아 내)	1. 높이 250cm, 너비 64cm, 폭 44cm, 둘레 190cm(공항 이전) 2. 높이 196cm, 너비 56cm, 폭 36cm, 둘레 154cm(공항 이전) 3. 높이 171cm, 너비 54cm, 폭 39cm, 둘레 145cm(관덕정 뒤뜰 이전, 세번째) 4. 높이 146cm, 너비 56cm, 폭 36cm, 둘레 145cm(관덕정 뒤뜰 이전, 네번째)
	삼성혈	1. 높이 236cm, 너비 68cm, 폭 31cm, 둘레 187cm(동) 2. 높이 218cm, 너비 72cm, 폭 45cm, 둘레 197cm(서)

지역	벽수 명	크기(높이, 너비, 폭)
	삼성혈 건신문 앞	1. 높이 176cm, 너비 57cm, 폭 37cm, 둘레162cm(동) 2. 높이 188cm, 너비 67cm, 폭 44cm, 둘레210cm(서)
	민속자연사 박물관	1. 높이 240cm, 너비 61cm, 폭 31cm, 둘레170cm(동) 2. 높이 244cm, 너비 62cm, 폭 42cm, 둘레168cm(서)
	제주시청	1. 높이 214cm, 너비 64cm, 폭 37cm, 둘레182cm(동) 2. 높이 175cm, 너비 42cm, 폭 44cm, 둘레180cm(서)
	제주대 정문앞	1. 높이 204cm, 너비 62cm, 폭 51cm, 둘레182cm(동) 2. 높이 225cm, 너비 66cm, 폭 42cm, 둘레216cm(서)
	제주대 박물관 앞	1. 높이 150cm, 너비 60cm, 폭 39cm, 둘레184cm(좌) 2. 높이 159cm, 너비 54cm, 폭 32cm, 둘레154cm(우)
	KBS방송국	1. 높이 233cm, 너비 80cm, 폭 54cm, 둘레220cm(동) 2. 높이 234cm, 너비 72cm, 폭 52cm, 둘레199cm(서)
	돌문화공원	1. 높이 161cm, 너비 54cm, 폭 33cm, 둘레 156cm
전북 순창읍	남계리 벽수	1. 높이 175cm, 둘레 200cm
	충신리 벽수	1. 높이 180cm, 둘레 170cm
전북 남원시	북천리 벽수	1. 높이 190cm, 폭(앞면) 50cm(서방축귀대장군) 2. 높이 180cm, 폭(앞면) 50cm(동방축귀대장군)
	서천리 벽수	1. 높이 200cm, 폭(앞면) 56cm, 폭(측면) 25cm(진서대장군) 2. 높이 250cm, 폭(앞면) 48cm, 폭(측면) 30cm(방어대장군)
	실상사 벽수	1. 높이 260cm, 폭(앞면) 50cm, 폭(측면) 40cm, 가슴 폭 50cm(상원주장군) 2. 높이 250cm, 폭(앞면) 50cm, 폭(측면) 50cm(대장군)
	유곡리 벽수	1. 높이 200cm, 폭(앞면) 60cm, 측면 폭 45cm(오른쪽 천하대장군) 2. 높이 200cm, 폭(앞면) 50cm, 폭(측면) 40cm (왼쪽천하대장군)
	권포리 벽수	1. 높이 160cm, 폭(앞면) 40cm, 측면 폭 30cm(우측 남향) 2. 높이 180cm, 폭(앞면) 40cm, 폭(측면) 35cm(좌측) 3. 높이 140cm, 폭(앞면) 50cm, 측면 폭 30cm(방사탑) 4. 높이 100cm,(동자승)
	의지리 벽수	1. 높이 150cm, 폭(앞면) 50cm, 측면 폭 30cm(좌측 할아버지) 2. 높이 150cm, 폭(앞면) 50cm, 폭(측면) 30cm(좌측)
전북 부안	죽림리 벽수	1. 높이 190cm, 폭(앞면) 42cm,(상원축귀주장군) 2. 높이 180cm, 폭(앞면) 40cm,(하원축귀당장군)
	서외리 서문안 벽수	1. 높이 220cm, 둘레 140cm,(상원주장군) 2. 높이 200cm, 145cm,(하원당장군)
	동중리 동문안 벽수	1. 높이 200cm, 앞면 60cm, 측면 40cm(할아버지) 2. 높이 230cm, 앞면 50cm, 측면 40cm(할머니)

지역	벽수 명	크기(높이, 너비, 폭)
전남 무안	무안읍성 벽수	1. 높이 200cm, 앞면 37cm, 측면 33cm(동방대장군) 2. 높이 180cm, 앞면 37cm, 측면 30cm(서방대장군)
전남 나주	불회사 벽수	1. 높이 170cm(주장군, 여장승) 2. 높이 230cm(하원당장군, 남장승)
	운흥사지 벽수	1. 높이 270cm, 앞면 60cm, 측면 34cm(상원주장군) 2. 높이 210cm, 앞면 73cm, 측면 35cm(하원당장군)
전남 영암	쌍계사지 벽수	1. 높이 345cm, 앞면 40cm, 측면 76cm, 둘레 210cm(주장군) 2. 높이 247cm, 앞면 40cm, 측면 70cm, 둘레 175cm(당장군)
전남 곡성	울천리 벽수	1. 높이 110cm, 폭 80cm(얼굴상) 2. 높이 160cm(맞은 편)
	가곡리 벽수	1. 높이 210cm, 앞면 60cm, 얼굴 58cm(여상) 2. 높이 227cm, 앞면 58cm, 얼굴 47cm(남상)
전남 보성	해평리 벽수	1. 높이 200cm, 둘레 160cm(상원주장군, 여상) 2. 높이 200cm, 둘레 163cm(하원당장군, 남상)
전남 장흥	방촌리 벽수	1. 높이 235cm, 너비 40cm, 둘레 160cm(진서대장군) 2. 높이 197cm, 너비 48cm, 둘레 173cm
경남 함양	영은사지 벽수	1. 높이 250cm, 앞면 60cm, 측면 70cm(우호대장군) 2. 높이 170cm, 앞면 50cm, 측면 55cm(좌호대장군)
경남 창령	관룡사 벽수	1. 높이 220cm, 앞면 52cm, 측면 49cm(좌측) 2. 높이 250cm, 앞면 60cm, 측면 43cm(우측)
경북 상주	남장사 벽수	1. 높이 186cm
경남통영시	독벽수	1. 높이 198cm, 몸통 160cm, 아래몸통 131cm
	명정동 돌벽수	1. 높이 117cm, 앞면 42cm, 측면 23cm, 머리둘레 92cm(남자) 2. 높이 118cm, 앞면 43cm, 측면 29cm, 머리둘레 102cm(여자)
	산양읍 곤리도 벽수(할배, 할매)	1. 높이 125cm, 앞면 18cm, 측면 13cm(천하대장군) 2. 높이 120cm, 앞면 17cm, 측면 13cm(지하여장군)
광주시	서원문 박석장승	1. 높이 200cm(보호동백) 2. 높이 185cm(와주성선)
여주시	동산동 돌벽수	1. 높이 132cm(남정중)
	봉산동 돌벽수	1. 높이 200cm, 둘레 140cm(화정여) 2. 높이 200cm, 둘레 140cm(남정중)

2. 육지부 석장승 조사 일지

전남 나주, 전북 순창 (2025. 1. 3. ~ 1. 4)

1. 나주 불회사 석장승(국가 민속문화유산)
2. 나주 운흥사 석장승(국가 민속문화유산)
3. 순창군 남계리 석장승(국가 민속문화유산)
4. 순창군 총신리 석장승(국가 민속문화유산)
5.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신기마을 석장승

전북 부안(2025. 3. 10. ~ 3. 11)

1. 부안 죽림리 석장승 (상원금귀장군·하원금귀장군)
2. 부안 동문안 당산 (하원당장군·상원주장군)
3. 부안 서문안 당산 (하원당장군·상원주장군, 국가 민속문화유산)
4. 부안 보안군 상입석리
5. 부안 월천리 환웅·단군 벽수

전남 무안, 영암, 곡성, 강진, 장흥, 보성(2025. 5. 12. ~ 5. 13.)

1. 무안 읍성 석장승(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2. 무안군 동탄면 법천사 석장승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3.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발산마을 미륵(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4. 영암 국장생 황장생(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5. 영암 쌍계사지(주장군, 상원당장군)
7.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석장승 남, 여
8. 전남 곡성군 오산면 율천리 석장승 2기
9. 전남 강진 병영성 홍교 석장승 2기
10. 전남 장흥 방촌리 석장승 (국가 민속문화유산)
11. 전남 보성 해평리 석장승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전남 여수(2025. 08. 26)

1. 여수시 연등동 벽수 2기 남정중, 화정녀(국가 민속문화유산)
2. 여수시 동산동 벽수 2기 남정중, 화정녀
3. 여수시 봉산동(벽수골) 벽수 2기 남정중, 화정녀
4. 여수시 시전동(선소마을) 벽수 2기 남정중, 화정녀
5. 여수시 굴강 벽수 2기

광주광역시(2025. 08. 27)

1. 광주서원문 밖 석장승(보호동맥, 와주성선)광주시 민속문화유산

전북 남원(2025. 05. 13)

1. 남원 실상사 석장승 3기(국가 민속문화유산)
2. 남원 주천리 석장승(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3. 남원 북천리 석장승 2기
4. 남원 서천리 석장승 (국가 민속문화유산)
5. 남원 운봉면 권포리 석장승 4기
6. 남원시 운봉면 의지리 석장승 2기
7.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닥실마을) 석장승 2기
8. 남원 만복사지 석장승 1기(전라북도 유형문화유산)

경남 창녕, 합천, 진주, 사천(2025. 06. 12. ~ 06.13)

1. 창녕 관룡사지 석장승(남, 여)
2. 합천 사촌리 석장승 (하원대장군·상원대장군)
3. 함양군 영은사지 석장승(우호대장군·좌호대장군)
4. 진주 대야고등학교, 석인상
5. 사천읍 가산리 석장승 4기(경남 민속문화유산)

경남 통영시(2025. 08. 27)

1. 통영시 문화동 벽수 1기, 토지대장군 (국가 민속문화유산)

2.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마을 2기(마을제, 국가민속문화유산)
3.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원항마을 2기
4.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 내 4기(기암석대옹)
5. 통영시 명정동 논개고개 2기

대전광역시(2025. 06. 24)

1. 대전시 대덕구 용호동 석장승(할머니, 할아버지)
2. 대전시 동구 비룡동 줄골 석장승(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3. 대전시 동구 신상동 오리골 장군석
4. 대전시 동구 용운동 신장 석장승
5. 대전시 법동 석장승 (대전시 민속문화유산)
6. 대전시 읍내동 뒷골 석장승
7. 대전시 읍내동 석장승
8. 유성구 화암동 돌장승

경북 상주, 의성(2025. 06. 25)

1. 경북 상주시 남장사 석장승(국가 민속문화유산)
2. 경북 의성군 대곡사 석장승

연 구 진

연구책임

좌 혜 경

민속학 박사

제주학연구 95

제주 돌하르방과 석장승(벽수)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발행인 || 김완병

발행일 || 2025. 10. 31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TEL.(064)726-5623 FAX.(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주식회사 디자인신우

ISBN : 979-11-994020-2-7 933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